

김 룬 옥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최근 독일문학에서 나타나는  
‘낮선 것’의 의미 및 조건

- 클라우스 포올 Klaus Pohl과 아이젤 외짜킨  
Aysel Özakin의 작품을 예로 -

200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독어독문학과  
김진숙

# 최근 독일문학에서 나타나는 ‘낮선 것’의 의미 및 조건

- 클라우스 포올 Klaus Pohl과 아이젤 외짜킨  
Aysel Özakin의 작품을 예로 -

김 룬 옥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독어독문학과

김 진 숙

# 인 준 서

김진숙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논문은 최근 독일문학에서 나타나는 ‘낯선 것 das Fremde’의 의미를 상호문화성과 연관하여 젠더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여기서 독일 남성작가 클라우스 포울 Klaus Pohl의 희곡작품 『아름다운 낯선 여인 Die schöne Fremde』(1998판)과 터키 출신으로서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작가 아이젤 외짜킨 Aysel Özakin의 단편소설 『다른 자의 열정 Die Leidenschaft der Anderen』(1983)을 대표적인 예로 살펴본다.

위 두 작품은 문화가 충돌할 때 각 개체가 겪는 문화 충격과 정체성 혼란이라는 공통된 소재를 갖고 있다. 그리고 두 작가 모두 이런 소재를 다루며 문화 간의 이해와 소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문화 간 충돌과 갈등, 그로 인한 정체성 혼란 등은 각 등장인물이 ‘자신’과 ‘낯선 것’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포울의 작품에서는 어떤 인물도 ‘나’와 ‘너’를 극단적으로 이분화 하는 ‘반목 원칙’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며, 그 전략도 ‘중심’에서 제외된 것을 타자화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중 인물들이 겪는 문화 충격은 문화 간의 이해와 화합으로 발전하지 못한다. 이에 비해 외짜킨의 작품에서는 문화 충돌 및 충격으로 인한 갈등이 극단적으로 이분화되는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문화 충격으로 인한 주인공의 정체성 혼란이 새로운 문화에 적합한 정체성의 형성 내지 변형을 통해 극복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르게 드러나는 자아관 내지 인간관에 따라 각 작품 속에서 ‘낯선 것’도 상이한 의미를 갖는다. 포올의 『아름다운 낯선 여인』에서 ‘낯선 것’은 ‘나’를 중심으로 나누어진 ‘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외짜킨의 『다른 자의 열정』에서 ‘낯선 것’은 ‘너’의 모습이자 동시에 ‘나’의 모습이기도 하다.

독일 내에서 ‘주류’ 문화를 거부하는 포올은 ‘낯선 것’에 대해 열린 입장을 보이며, 문화 충격으로 인한 갈등과 혼란의 양상을 파악하고 문화 간의 상호 배타적인 반목을 비판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가능성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이것은 독일이라는 문화 조건 하에서 ‘낯선 자’로서 정체성을 가져본 적이 없는 작가의 문화 체험 범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 점에서 포올의 자아관 내지 인간관은 ‘낯선 곳’에서 ‘낯선 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겪은 터키 출신 작가 외짜킨의 경우와는 또 다른 사회문화적 조건을 지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문화 및 타문화에 대한 두 작가의 각기 다른 체험과 의식은 그들의 (사회문화적 영향 하에 형성된) 성 정체성, 즉 ‘남성적’ 혹은 ‘여성적’ 젠더의식 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우선 포올이 ‘여성적-약한’ 타문화에 대한 ‘남성적-강한’ 자문화의 폭력적이고 배타적인 태도가 ‘남성적’ 가치 중심주의에 기인하고 있음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의 작품에서 폭력성이 단지 남성의 ‘특성’이 아니라 (여성을 포함한) 인간의 어두운 면으로 그려지는 것도 남성 중심의 성 역할 분담을 깨뜨리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거의 모든 여성인물은 여전히 ‘전형적인

여성'이거니와, 여기서 '남성적' 가치를 중심으로 왜곡되고 타자화된 '여성적 특성'에 대한 성찰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의 작중 인물도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인 원칙을 넘어서 새로운 원칙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제시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비해 사회문화적으로 '여성성'을 키울 수밖에 없었던 터키 출신 여성 작가 외짜킨의 경우, 문화 간의 이해 문제에 있어서도 모성애 즉, 소위 '전형적인 여성성'을 발휘하는 경향을 보인다. 외짜킨의 문학적 자아는 문화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타 문화의 변화 내지 타자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존의 자아상을 새로운 문화에 적합한 정체성으로 변형시킴으로써 그 해답을 찾는다. 대립이나 경쟁, 혹은 승리가 아닌 이해와 화합, 그리고 수용 및 포용을 추구하는 이러한 방식에는 오랫동안 '남성'을 중심으로 사회화된 '여성'으로서의 젠더의식, 말하자면 '여성적' 유연성이 크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작품 속에서 '낯선 것'의 의미 및 그 구성은 각 작가가 어떤 사회문화적 조건 하에서 어떻게 젠더의식 차원의 자아정체성 및 성 정체성을 형성하였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 론 .....	1
II. 연구 관점 및 방법 .....	5
1. 상호문화성과 문학 .....	5
2. 젠더연구 관점 .....	8
III. 탈 '주류 對 비주류' 문화 문학과 이민자 문학 .....	15
1. 탈 '주류 對 비주류' 문화 문학 .....	15
2. 이민자 문학 .....	16
2.1 독일 내 이민자 문학 .....	16
2.2 터키 출신 이민자 문학 .....	19
IV. 작품 속 '낯선 것'의 의미 및 조건 분석 .....	21
1. 클라우스 포올: 『아름다운 낯선 여인 Die schöne Fremde』 .....	21
1.1. 작가와 작품 분석 관점 .....	21
1.2. 인물 간의 갈등 구조로 본 '낯선 것'의 의미 .....	23

1.2.1. 독일인과 비독일인 간 갈등의 구조 및 본질 .....	23
1.2.2. ‘여성적’ 젠더와 ‘남성적’ 젠더 간의 이분법적 대립구조 .....	31
2. 아이젤 외짜킨: 『다른 자의 열정 Die Leidenschaft der Anderen』 .....	36
2.1. 작가와 작품 분석 관점 .....	36
2.2. 일인칭 화자의 갈등 양상으로 본 ‘낯선 것’의 의미 .....	37
2.2.1. ‘낯선 자’로서 겪는 정체성 혼란 .....	37
2.2.2. ‘낯선 여인’으로서 겪는 정체성 혼란 .....	41
2.2.3. 작가로서 겪는 정체성 혼란 .....	46
3. 포올과 외짜킨: ‘낯선 곳’으로 떠나는 여행의 의미 .....	50
3.1. 상이한 여행 동기와 결과 .....	50
3.2. 작가가 지닌 젠더의식과의 연관성 .....	52
<b>V. 결론: ‘낯선 것’의 상이한 의미 및 조건 .....</b>	<b>57</b>
<b>VI. 연구 전망 .....</b>	<b>60</b>

## 참 고 문 헌

## ABSTRACT

# I. 서론

최근 급속한 교통·통신 수단의 발달과 고도의 산업화는 국가 간 내지 문화 간의 교류를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 및 국가 사이의 내적 경계가 유연해지고, 국민의 개념도 바뀌었다. 한 사회/국가의 구성원은 혈연을 강조하는 과거의 '민족' 개념과 달리 이제는 주로 거주지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 개념의 구별은 예컨대 한국계 미국인, 터키계 독일인 등과 같은 표현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리고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야말로 작금의 활발한 문화 간 교류가 '몸으로' 직접 느껴지는 존재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이러한 의미의 문화 간 교류 및 문화체험은 개인적 차원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 50년대 이후 많은 '경제이민자'의 유입과 동·서 통일이라는 최근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제이민자'들은 자신에게 익숙한 문화의 터전을 뒤로 하고, 타문화 세계를 '선택'했을 것이다. 그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고, 혹은 변화시키는지,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절박한 존재문제이며, 그러한 정체성 형성 방법은 그들이 선택한 낯선 내지 새로운 문화권 안에서도 자기 고유의 문화를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혹은 변경시키는지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란 그 문화권에 속한 구성원들이 사회화 과정을 통해 내면화한 규범과 가치가 유·무형으로 나타나는 총체로 이해된다면, 그런 문화는 일상적

인 삶속에서는 구체적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대개의 경우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다른 문화를 접했을 때에서야 비로소 문화를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문화는 문화 충격을 통해서 분명해진다.<sup>1)</sup> 다시 말하면, 자문화는 타문화와의 충돌 및 그에 따른 문화 자체에 대한 인식 과정이 시작되면서 비로소 의식 된다.<sup>2)</sup> 특정한 문화권 안에서 성장하여 자연스레 그 문화에 적합한 자기정체성을 형성한 존재는 타문화를 접하게 되었을 때, 새로 접하게 된 것이 자신에게 ‘익숙한 것’에 반해 ‘다르다’ 내지는 ‘낯설다’라고 인식하게 되고, 자신에게 ‘낯설지’ 않은 자문화 역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인류 문화 내지 문명의 발달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조건이 문자의 발명이라고 보는 문화학의 일반적 관점에서 출발한다. 문자의 발명으로 인류는 이전 보다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나’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그 구현의 총체로서 문화를 후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문학은 문자로 이루어진 문화 예술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문학이 문화를 담아내고 또 전수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한다면, 문화 충격을 통해 자신이 속한 문화와 새로 접하게 된 ‘낯선’ 문화를 인식하고, 이에 따른 내·외적 혼란 및 갈등을 주제로 한 탈 ‘주류 對 비주류’ 문화 문학 내지 이민자 문학은 문학과 문화의 관계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논문은 우리시대의 독일이라는 특정한 지역적 및 문화적 조건 하에서

---

1) Vgl. Roy Wagner, *The Invention of Culture*. 2. Auflage. Chicago/London 1981, S. 16.

2) Vgl. Annette Wierschke, *Schreiben als Selbstbehauptung. Kulturkonflikt und Identität in den Werken von Aysel Özakin, Alev Tekinay und Emine Sevgi Özdamar. Mit Interviews*. Frankfurt a. M. 1996, S. 13.

각 문화 주체가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문화 내지 문화적 차이를 예민하게 인식하고 그런 인식과 함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성찰, 그 속에서 겪는 혼란 및 갈등을 그리는 최근 독일문학 작품 속의 '낯선 것'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의 장'으로서 독일문학의 한 양상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작품 분석 부분에서 그 이론적 바탕을 이루게 될 상호문화성 연구 내지 젠더연구 관점이 아직까지 국내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주요 동기가 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두고 싶다.

여기서 분석 대상 작가는 각기 다른 문화권에서 형성된 정체성들이 문화 충돌 및 충격을 통해 깊은 혼란과 갈등 및 성찰로 이어지는 문제를 다룬 독일인 남성작가 클라우스 포울 Klaus Pohl과 터키 출신 여성작가 아이젤 외짜킨 Aysel Özakin이다. 이 두 작가가 아직까지 국내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그러나 우리 시대의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독일작가들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으며, 바로 이런 작가들의 작품을 다룬다는 점에서도 본 논문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포울을 선정한 이유는, 최근 '주류'를 표방하며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신민족주의 문화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는 젊은 작가로서 그가 탈 '주류 對 비주류' 문화 문학을 추구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짜킨의 경우, 역시 '주류 문화'에 속하지 않는 이민 작가로서 독일 내의 (가령 이태리나 스페인 같은) 유럽권 출신 이민자들과 달리 태생적으로 비유럽 문화권에 속한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이로써 이들은 독일인 작가와 비독일인 작가라는 차이점도 가지게 된다.

이들이 '다른' 문화 속에서 흔들리는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는 개인의 정체성을 그린 작가라면, 그런 개인적 정체성은 그 인물 내지 작가가 속하는 문화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사고방식 내지 집단적 정체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 작가들이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도 차이점을 보인다는 점이 주의를 끌었다. 즉, 이들의 생물학적 성(sex)이 각각 남성과 여성이라는 것이다. 독일이라는 공통된 지역적·문화적 배경 하에서 이들이 관습적으로 각각 '남성'이나 '여성'으로 이해된다는 점은 작가로서 '낯선' 문화에 직면하여 자아정체성 및 성 정체성의 문제를 문학 작품 속에 상이하게 형상화 하게 되는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와 같이 독일이라는 공통된 지역적 공간에서 서로 다른 문화가 어떻게 충돌하고, 또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형성된 정체성들은 어떤 성찰과 혼란 및 갈등을 겪는 것으로 그려지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내국인으로서 독일인 남성작가와, 독일로 이민한 외국인으로서 터키 출신 여성작가가 이해하는 '낯선 것'의 의미 및 그런 의미 구성의 사회문화적 조건이 밝혀진다면, 본 연구의 전망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문화 교류가 삶의 필수적인 요건이 되어 버린 오늘날 문화 충격을 문화 이해로 발전시키기 위한 (자기) 비판적 성찰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II. 연구 관점 및 방법

### 1. 상호문화성과 문화

‘문화’라는 단어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 중의 하나이다. 유럽 문화, 혹은 동양 문화 뿐만 아니라 의복 문화, 음식 문화, 주거 문화, 노인 문화, 청소년 문화 등이 그런 예들이다. 여기서 ‘문화’라는 개념은 어떤 특정한 집단이 공통적이고 일반적으로 드러내는 유형 및 무형의 행태나 성향을 나타내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문화는 포괄적이고 집합적인 의미를 갖는다.<sup>3)</sup>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은 자연환경, 역사적 배경, 정치적 상황 등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건을 바탕으로 하여 문화를 만들어낸다. 또한 그렇게 생성된 문화는 역으로 그 생산주체의 인식 방법 즉, 자아 및 타자의 정체성 구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민족성’ 내지 ‘국민성’이라는 개념에서 나타나듯이, 각 개인은 어떠한 문화권에서 사회화되었는지에 따라 다소 상이한 정체성과 성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지구상에는, 그리고 한 사회/국가 내에서도 수없이 다양한 문화와, 그 문화 안에서 형성된 다양한 정체성이 존재하게 된다.

서구 열강 제국 중심의 식민지 시대를 1, 2차 세계 대전이라는 두 번의 커다란 재앙을 겪으며 끝낸 세계는 이제 ‘지구촌 시대’를 맞이하여 문화의

---

3) Vgl. ebd., S. 12.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식민지 시대에 정복국가와 피정복 국가로 이분되었던 세계는 이제 '경제 논리'에 입각하여 경제선진국과 경제 후진국으로 재편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급속히 진행되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 문화 교류와 문화 전이, 혹은 문화 충돌이 더욱 잦아지면서 경제 선진국은 곧 '문화선진국', 경제후진국은 '문화후진국'이라는 인식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다양한 즉, 각 문화 간의 intra- und interkulturell 긴밀한 상호작용 속에 살고 있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 문학 분석을 위해 일차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상호문화성 Interkulturalität과 문학의 관계이다. 여기서 일단 문화를 “문제 해법의 총체로 [...] 즉, 함께 사는 인간, 물질, 생각, 감정 등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의 총체, 인식 체계에 대한 구상의 총체로 als eine Sammlung von Rezepten zur Lösung von Problemen, [...] von Entwürfen für den Umgang mit Mitmenschen, mit Sachen, mit Gedanken und Gefühlen, für Organisation der Wahrnehmung”<sup>4)</sup> 이해할 수 있다면, 특히 문학적인 차원에서 (프리드리히 쉴러 Friedrich Schiller의 말에 따라) 문화는 인간 내지 삶을 “미학적으로 만들어 주는 ästhetisch [zu machen]”<sup>5)</sup>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문학 역시 인간의 고차원적인 정신활동의 산물이

---

4) Heinz Göring, Deutsch als Fremdsprache und interkulturelle Kommunikation. In: Alois Wierlacher (Hrsg.), Fremdsprache Deutsch. Grundlagen und Verfahren der Germanistik als Fremdsprachenphilologie. Bd. 1. München 1980, S. 71-91, 여기서는 S. 72.

5) Friedrich Schiller, Schillers Werke, Bd. IV, eingeleitet von Hans Mayer/Golo Mann. Frankfurt a. M. 1966, S. 260.

며, 인간의 삶을 인간답게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이해되어 왔다. 문학을 문화의 핵심적 구성 요소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문화는 인간 세계 및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이들 요소를 서로 연결시켜 주는 거대한 상호문화적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문학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가와 독자의 정체성, 사물과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 인식 방법 등도 역시 이러한 문화 네트워크 안에서 형성된다. 문학의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인간인 한, 문학은 인간 사회를 떠나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문학은 인간의 삶/문화를 반영하고 해석하며, 또한 문화를 변화시키는 잠재력도 가진다.

과거에 비해 문화 간의 교류가 활발해진 오늘 날,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자기)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이제 삶을 위한 기본 조건이 되었다. 이를 위해 다른 문화권의 여러 정보를 단순히 수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문화의 근간으로서 인간 정신활동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문학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문화의 표면적 현상이 아닌 내적인 부분까지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의미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상호문화성과 문학의 관계에 주목하는 연구는 각 문화의 특수성 및 공통성이 문화 상호 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조화로운 상호 교류를 위한 의식의 확대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 2. 젠더연구 관점

본 논문에서는 최근 새로운 문학 분석 방법론으로 대두되고 있는 젠더연구의 관점을 바탕으로 문학과 상호문화성 문제를 분석할 것이다. 젠더연구는 ‘남성과 여성’을 본질론적 차원에서 각각 상이하게 규정해온 기존의 성담론과 달리 어떤 고정된 성(性) 개념을 전제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은 인간의 성을 생물학적 특징에 따라 ‘남성’과 ‘여성’ 즉, 두 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성이 특정한 ‘본성’을 지닌다고 보는 전통적 및 (일부) 페미니즘의 본질주의로부터의 결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인간의 성이 ‘생물학적 성 Sex’과 ‘사회적 성 Gender’으로 나누어서 이해될 수 있다는 인간학 차원의 새로운 인식과 맥을 같이 한다. 즉, 인간의 성적 특성이 생물학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최근의 여러 학제 간 연구에 의해 점점 더 설득력 있게 뒷받침되면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은 원칙적으로 ‘사회적 성’으로서 ‘자신’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적 존재로서 각 개체는 어떠한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성 정체성을 키워나가는가에 따라 다양한 젠더의식을 가질 수 있고, 이와 같이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고 결정된 즉, ‘만들어진’ 성 정체성이 인간의 현실적 ‘특성’을 결정짓는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논문에서 쓰이는 ‘남성적’ 혹은 ‘여성적’이라는 개념은 남성 및 여성의 ‘자연적 특성’이 아니라, 특정한 현상이나 성향을 표시하는 ‘사회문화적 기호’로 이해된다.

젠더연구는 젠더의식이 문학, 학문, 정치, 경제, 사회 등 문화의 각 분야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묻는 데서 출발하는 이론이다. 다시 말해, 성의 개념이 어떻게 생겨나고 만들어졌는지를 밝혀냄과 아울러, 그렇게 ‘만들어진’ 성 개념이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추적함으로써 정치, 사회, 예술 및 문학, 학문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문화를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에서, 말하자면 ‘뒤집어 보는’ 시도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6)</sup>

아직도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는 일부의 오해를 고려하여 덧붙이자면, ‘고정된 성 개념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이 젠더연구가 핵심적인 면에서 ‘전통’ 페미니즘과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페미니즘과 마찬가지로 젠더연구는, 남성을 중심으로 여성의 ‘특성’을 ‘주변적인 것’으로 규정해온 전통적 남성이데올로기를 해체하려고 하지만, (최소한 일부) 페미니즘에서 시도하는 바와 같이 그런 남성이데올로기에 의해 왜곡되지 않은 ‘원래의’ 여성성을 찾거나 규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언어와 인식방식이 상호 구성적 작용을 한다면, 어떤 ‘새로운’ 사고도 사실상 기존의 언어 내지 인식 구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설사 ‘원래의’ 여성성이 있다하더라도 이미 모든 가치체계를 포함한 채 굳어버린 기존의 인식 구조로는 그것을 ‘새롭게’ 인지할 수도 없거니와, 또한 그것을 ‘새롭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아직도 우리

---

6) Vgl. Christina von Braun/Inge Stephan, 들어가는 말, in: dies. 편, 젠더연구, 성평등을 위한 비판적 학문. 탁선미/김륜옥/장춘익/장미영 역, 서울: 나남출판 2002, S. 19-28, 여기서는 S. 19.

주변에 (심지어 학문적 토론 상에서조차)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오해 즉, '젠더'라는 개념이 단지, 혹은 거의 여성만을 염두에 두고 거론될 수 있다는 편견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그 개념을 여성과 연관시켜 처음으로 거론하게 된 것은 페미니즘이었지만, 이제 젠더연구에서는 당연히 남성, 나아가 이른바 '남성적 특성'이 부여된 모든 사회문화적 기호와 관련하여서도 젠더 개념을 토론에 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학적으로 볼 때, 남성 중심의 성 담론 즉, '자신'과 '다른 성'으로서 여성의 '특성'을 각각 '이성/승화된 인간성/문화' 및 '감성/미개한 원시성/자연'과 동일시했던 이면에는 죽음에 대한 담론주체의 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sup>7)</sup> 즉, '유한한' 삶 내지 인생의 허무함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같은 맥락에 있거니와, 이에 따라 '유한한 삶' 내지 '자연'이 부정적인 기호를 띠게 되고, 그렇게 '유한할 뿐인 생명'을 선사한 모태 내지 '여성적인 것'에 대한 부정으로써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특히 문화의 상징으로서 예술/문학은 '여성의 자궁'을 통하지 않고, '남성의 머리'를 통하여 탄생하였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남성판타지도<sup>8)</sup> 탄생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7) Vgl. Christina von Braun, 젠더, 성, 역사, in: ebd., S. 29-90, 여기서는 특히 S. 29f.

8) Vgl. 이런 상상과 관련하여 현대 미학이론가 발터 벤야민 W. Benjamin은 문학작품의 생산을 '남성적' 즉, 소위 '정신적-고차원적 출산'으로 정의하였다. Walter Benjamin, Gesammelte Schriften, Bd. IV/1, hrsg. v. Tilman Rexroth. Frankfurt a. M. 1972, S. 438: "대작의 생성은 흔히 출생의 상(想)과 관련하여 생각되었다. 그런 상(想)은 [...] 두 방면에 따른 과정을 포괄한다. 한 방면은 창조적 임신과 연관이 있으며, 창조력에 있어서 여성적인 것과 관련된다. 이때 여성적인 것은 [...] 작품에 생명을 불어 넣고, 그 후 사멸한다. 작품의 완성은 [...] 작품 자체의 내부에서 일어

이와 같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고 마는 '유한한' 내지 '불완전한' 인간에게 생식과 성 본능은 하나의 위로일 수 있다. 생식과 성본능은 인간의 종족 보존 기능 외에도 국소적인 범위에서 사회와 집단을 지속시키고 재생산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sup>9)</sup>, 결국 '성'은 인간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삶의 깊숙한 곳에서 정체성 형성 과정에 거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이런 영향을 간과했던 전통적 성 담론에 따라 젠더의 사회문화적 '구성'이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구성은 상이한 국가/민족 내지 문화 간의 관

---

난다. [...] 즉, 창조물은 그 완성에서 창조자를 새로 낳는 것이다. 창조물이 잉태되었던 그의 여성성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의 남성적 요소에 따라서 말이다. 행복한 심정으로 그 창조자는 자연을 능가한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처음으로 모체의 어두운 심연으로부터 잉태하였던 이 존재에 대해, 이제 더욱 밝은 세계의 덕으로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가 태어난 곳이 그의 고향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인 곳에서 태어난다. 그는 한 때 자신이 잉태하였던 작품이 낳은 첫 아들이다. Oft hat man sich die Entstehung der großen Werke im Bild der Geburt gedacht. Dieses Bild [...] umfaßt den Vorgang nach zwei Seiten. Die eine hat es mit der schöpferischen Empfängnis zu tun und betrifft im Genius das Weibliche. Dieses Weibliche [...] setzt das Werk ins Leben, dann stirbt es ab. [Die] Vollendung des Werkes [...] vollzieht sich im Innern des Werkes selbst. [...] Die Schöpfung nämlich gebiert in ihrer Vollendung den Schöpfer neu. Nicht seiner Weiblichkeit nach, in der sie empfangen wurde, sondern an seinem männlichen Element. Beseligt überholt er die Natur: denn dieses Dasein, das er zum ersten Male aus der dunklen Tiefe des Mutterschoßes empfing, wird er nun einem helleren Reiche zu danken haben. Nicht wo er geboren wurde, ist seine Heimat, sondern er kommt zur Welt, wo seine Heimat ist. Er ist der männliche Erstgeborene des Werkes, das er einstmals empfangen hatte." 재인용: 김륜옥, 헤르만 헤세와 '낯선 것'의 구조 및 의미 - 사회문화적 생성사의 관점에서 『클링소어의 마지막 여름』을 예로. 헤세연구, 제 12집 (2004), S. 43-62, 여기서는 S. 54.

9) Vgl. Christina von Braun, a.a.O., S. 29f.

계문제와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선 전통적으로 서구의 성 담론이 인간을 ‘남성’ 대 ‘여성’이라는 극단적 의미로 이분화 하였던 것을 상기해보자. 여기에는 인간의 생물학적·신체적 특징을 기준으로 ‘몸에 맞는 정신’이라는 즉, 성에 대한 본질주의적인 이해가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일상적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 및 그 가치는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으로 분류되었다. 이미 자크 데리다 Jaques Derrida나 미셸 푸코 Michel Foucault 등이 지적하였듯이<sup>10)</sup>, 이러한 이분화를 바탕으로 한 성 담론에 따르면 ‘이성 Logos’은 ‘남성적인’ 것이고, ‘감성 Eros’은 ‘여성적인’ 것이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이며 용감하고 강한 것은 ‘남성적인’ 코드로 해당 문화의 (집단)무의식 속에 뿌리박혔고, 소극적이고 겁이 많으며 교활하고 약한 것은 ‘여성적인’ 것으로 규정되어 고정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이런 이분화가 특정한 가치 내지 가치평가를 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일반적으로 ‘남성적인’ 가치들은 우월하고, ‘여성적인’ 것들은 열등한 것으로 이해된다. 서구의 성 담론은 ‘남성’을 중심으로 하여 ‘남성’과 ‘여성’을 양극으로 분리한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생존 경쟁에 유리한 신체조건을 가진 남성주체는 사회·문화 발전에 있어서 (객체로서의) ‘여성’을 누르고 주도권을 갖게 되었고, 세상의 모든 가치와 질서를 주체 중심으로 정리하여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여성적인’ 것이라 하며 타자화 하기에 이르렀다.

---

10) Vgl. 김륜옥, 토마스 만과 ‘여성적인 것’ - 독문학 새로 읽기. In: 독일문학, 제 67집 39권 3호 (1998), S. 183-207, 여기서는 S. 186f.; 그 외 참고: 문학이론연구회 엮음, 담론 분석의 이론과 실제.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2.

바로 이러한 양상은 서구의 담론에서 드러나는 국가나 문화 간의 관계 규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흔히 ‘강대국’과 ‘약소국’의 개념에서 ‘약소국’은 ‘여성적’ 특징으로 점철된 비서구 국가로 분류되고, 이런 의미에서 ‘여성적’ 비서구의 ‘후진국’ 문화는 ‘남성적’ 서구의 ‘선진국’ 문화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이해되거나, 혹은 때때로 이국적이고 ‘다르다’거나 ‘새롭다’하여 극단적으로 신비화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sup>11)</sup>

젠더연구는 기존에 통용되던 이러한 ‘여성성’ 및 ‘남성성’의 개념을 넘어

---

11) Vgl. 이러한 관점으로 ‘문화 간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가령 헬렌 식수 Hélène Cixous도 서구의 로고스 중심적 사고체계의 해체를 요구하는 데리다의 이론을 따르고 있다. Vgl. Lena Lindhoff, Einführung in die feministische Literaturtheorie. Stuttgart/Weimar 1995, S. 122: “식수는, 서구 사고의 이성 중심적 체계가 두 성분을 위계적으로 정리한 대립 쌍(문화/자연, 형식/질료, 오성/감성 등)들을 만들어 냈으로써 의미와 가치를 생산해 낸다는 데리다의 이론을 따른다. 위계 질서에 따라 정렬된 개념들 속에서 문화적 체계 자체가 정의되며, 그 체계는 하위이자 비 조직화 된 것으로 규정되는 (자신의) 타자와 경계를 지음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다. 식수에 따르면 이러한 대립 쌍들에는 결국 성 차이를 가부장적으로 위계 질서화 하는 전략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 즉, 문화적인 대립들은 결국 **국 남성/여성이라는 대립을 항상 새로운 전이 양상으로 모사한다는 것이다** [강조: 김진숙]. Sie [Cixous] knüpft an die Theorie Derridas an, nach der das logozentrische System des abendländischen Denkens Sinn und Bedeutung hervorbringt, indem es binäre, hierarchisch geordnete Oppositionen aufstellt (Kultur/Natur, Form/Materie, Verstand/Gefühl usw.). In den hierarchisch übergeordneten Begriffen definiert sich das kulturelle System selbst und vergewissert sich seiner Identität durch die Abgrenzung von einem - seinem - Anderen, das als untergeordnet und unorganisiert bestimmt wird. Nach Cixous liegt diesen Oppositionen letztlich die patriarchalische Hierarchisierung der sexuellen Differenz zugrunde: Die kulturellen Oppositionen bilden letztlich in immer neuen Verschiebungen die Opposition Mann/Frau ab.”

서 양성을 동시에 포착하고, 양성 사이의 본질주의적 구분을 극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양성 간의 이동을 가능케 한다.<sup>12)</sup> 따라서 '고정관념으로부터의 탈피와 해방' 또는 '절대 진리의 해체'를 표방하는 젠더연구의 관점이야말로 단순한 성 문제를 넘어서 '다른 것'을 '다른 대로' 이해하고, 또 '다른 것'이 '타자'만의 특성이 아니라 '자신' 속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게 된다. 이런 차원에서 문화학으로서의 젠더학적 문학연구는 문학 속에 그려진 인간/삶의 모습을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서로 다른 문화를 배경으로 한 인간들이 조화롭게 사는 방법을 시사할 수도 있다.

---

12) Vgl. Christina von Braun, a.a.O., S. 22.

### Ⅲ. 탈 '주류 對 비주류' 문화 문학과 이민자 문학

#### 1. 탈 '주류 對 비주류' 문화 문학

인간 사회에도 분명히 존재하는 서열에 대한 사회 구성원 간의 끊임없는 갈등은 문화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 생성은 기득권층에 대한 비 기득권층의 비판과 항거를 소재로 한 문학이 끊임없이 쓰이고, 또 널리 읽혀져 온 배경이기도 하다. 계몽주의 시대에는 엄격한 신분제를 바탕으로 특권을 누리는 귀족층에 대해 비판적인 시민 문학이 있었고, 초기 산업화 시대를 거쳐 자본주의가 자리를 잡게 되었을 때는 자본가들의 물질 만능주의와 비인간성을 고발하는 사회주의 문학이 대두되었다. 또한 70년대 이후 부각되고 있는 페미니즘 문학 역시 (섹스와 젠더라는 이중적 의미의) '남성' 중심으로 짜여진 사회 속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여성들이 남성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담고 있다.

그러나 계몽주의 문학이든 사회주의 문학이든, 그리고 (초기의 일부) 페미니즘 문학을 포함한 사회비판적 문학은 원래 극복의 대상이었던 문화기득권층 즉, '주류층' 중심의 사회·문화를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반대편에서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이들 문학의 형태는 '주류' 문화를 비판하고 변혁을 요구하면서, 그 변혁 대상으로서의 주체 자리에 기존의 '주류' 대신 '비주류'를 뒀으로써 새로운 '주류'를 형성하는 데에 일조를 한 바 없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결과적으로 '다른 것'을 배제하고 '중심'으로

남으려는 주체와 객체의 상호배타적 이분법의 기본 메커니즘은 변함없이 반복된 셈이다.

본 논문에서 말하는 탈 '주류 對 비주류' 문화 문학이란 주류 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비주류 문학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사회·문화의 가치 척도로 통용되는 주류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기 위해 비주류 이데올로기를 문화 규범의 중심에 내세우는 문학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그 보다는 어떤 문화적 현상을 특정한 기준에서 이분법적으로 심판하려 하지 않으며 여러 다양한 입장을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담겨있는 문학을 탈 '주류 對 비주류' 문화 문학이라고 정의하도록 하겠다.

본고에서 다룬 포울의 작품들은 일단 이러한 노력이 담겨있는 예가 될 수 있으며, 그 한계도 분명히 짚어질 것이다. 또한 바로 아래에 서술되는 이민자 문학도 넓은 의미의 탈 '주류 對 비주류' 문화 문학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외짜킨의 이민자 문학은 비이민자로서 포울의 문학과 또 다른 차원에서 문화에 접근하고 이해하는 양상을 드러내는 예가 될 것이다.

## 2. 이민자 문학

### 2.1. 독일 내 이민자 문학

인류가 이루어 낸 눈부신 과학 및 경제의 발달이 인간에게 반드시 행복

만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3D 업종' 기피 경향으로 인해 최근 한국에서도 야기된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서 드러나듯이, 소위 '경제선진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특정 분야에서 노동력 부족 내지 경제 부양 능력 인구의 감소로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이유로 생겨난 국가 간 인구 이동은 상당 부분 노동력 교환과 관계된다. 보통의 경우 이민은 노동자들이나 망명자 내지는 피난민들에 의한 인구 이동의 한 형태이며, 각 개인에게는 이런 이동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남기는 문화 교류 형태가 되기도 한다.

독일에는 현재 대략 7백만 명 정도의 외국인이 살고 있으며, 그 중 절반에 가까운 수가 10년 이상 독일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sup>13)</sup> 여기에는 독일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 20세기에 두 번의 커다란 전쟁을 치르며 수많은 젊은 남성 노동력을 잃은 독일은 2차 대전 이후에 산업 복구를 위해 대규모의 대체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다. 1950년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이 이어지면서, 특히 1955년에는 이탈리아에서, 1960년에는 그리스와 스페인에서, 1961년에는 터키에서, 1963년에는 모로코에서, 1964년에는 포르투갈에서, 1965년에는 튀니지에서, 1968년에는 유고슬라비아에서 많은 인력이 독일로 이동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한국에서도 주로 광부와 간호원들이 독일로 건너와 독일 산업 발전에 한 몫을 하였다.<sup>14)</sup>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

13) Vgl. Irmgard Ackermann, Vorwort. In: dies. (Hrsg.), Fremde Augenblicke - Mehrkulturelle Literatur in Deutschland. Bonn 1996, S. 7.

14) Vgl. Carmine Chiellino (Hrsg.), Vorwort. In: Interkulturelle Literatur in Deutschland. Ein Handbuch mit 77 Abbildungen. Stuttgart/Weimar 2000, S. 2.

독일에 잔류하였고, 또한 고국에 있는 가족을 독일로 데려와서 정착하기도 하였다.

이들 중에는 문학 생산에 참여하는 작가들도 다수 있다. 흔히 예술 내지 문학은 일상생활 속에서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생존을 위한 기본 조건인 의·식·주가 해결된 후에야 예술에도 전념하게 된다면, 독일에서 노동자로서 삶을 시작한 '외국인'들이 문학 작품을 쓴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그들의 작품은 작가의 존재문제를 내포한다는 것이다.

독일문학계에서 본격적으로 '이민자 문학' 내지 '외국인 문학'이라는 용어가 쓰이게 된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 초기 이민자 문학의 테마를 살펴보면 대부분 작가가 이민이나 망명을 감행하기까지 겪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여, 이국으로 향하는 여행, 여행 중에 겪게 되는 내적·외적 요인에 의한 혼란과 갈등 등이 주를 이룬다.

독일 내 이민자들이 독일에서 집필하고 출판한 이러한 문학 작품들은 독일인과 이민자 사이에서 각각의 문화적 습성 내지 차이들로 인한 일상적 갈등을 완충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주 노동자들이 자기 고유의 문화와 그 속에서 형성한 가치관 및 정체성을 문학 작품을 통해 독일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며, 독일인들 역시 이를 계기로 (이주 노동자들에게 낯선) 자신들의 '다른' 문화와 사고방식 등에 대해서도 되짚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sup>15)</sup>

이민자들 중에서 특히 이민 1세대들은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서의 독일에

---

15) Vgl. Irmgard Ackermann, a.a.O., S. 7.

서 소수층을 이루거니와, 사회주류층 독일인들이 꺼리는 힘들고 위험한 일에 종사하는 비 주류층에서도 최 하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런 세대가 생산해내는 이민자 문학은 독일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계층 간의 문제나 인종간의 문제, 성 문제 등을 '다른' 시각으로 다루며 독특한 문화 내지 세계를 작품 속에서 그려낸다.

그리고 이민자 문학은 이민사가 길어짐에 따라 점점 더 다양한 문화의 충돌과 충격의 장이 된다. 이미 자문화 및 타문화의 여러 체험을 통해 복합적으로 융화된 새로운 형태의 문화를 지님으로써 이민 초기보다는 다소 변화된 정체성을 지닌 작가들도 있다. 이들은 '나'와 '너'의 삶과 그 속에 내재하는 가치를 더욱 복합적이고 독특한 시각으로 해석하며, 이를 문학 작품 속에 그려내고 있다.

## 2.2. 터키 출신 이민자 문학

특히 독일 내 터키 출신 작가의 이민자 문학은 대개 그들에게는 '낯선' 독일에서 겪는 이민생활을 서술하면서, 이민자로서 겪는 문화적 갈등 및 정체성 혼란을 주 테마로 다루고 있다. 여기서 비 유럽권 출신의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독일인들의 사고 및 생활 방식, 그리고 그러한 차이점들과 끊임 없이 부딪혀야 하는 터키 출신 이민자의 생각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된다. 이때 문학적 자아의 '자신'에 대한 성찰도 두드러지거니와, 이러한 자기 성찰은 자기 고유의 '문화'에 대한 성찰로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런 이민자 문학에는 작가들의 의식 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그리고 독일이라는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고향에 대한 회상과 풍경 묘사 등이 자주 등장한다. 그리고 터키 내의 사회·정치적 사건들은 최근까지도 여전히 자주 다루어지는 소재들이다. 독일이라는 이국의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이민자로서 겪는 정체성 혼란은 (그 당시까지 유럽/독일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분열된 터키 사회와 연관되어 더욱 섬세하게 묘사된다. 군사 독재 정부의 정치적 압박으로 인해 독일로 망명해야했던 작가들의 경우 모국에서 겪었던 정체성 혼란과, 이국의 낯선 문화 속에서 이민자로서 겪는 정체성 혼란을 접목시켜 작품 속에 반영한다. 마찬가지로 오랜 이민 생활 후에 작품 활동을 시작한, 다시 말해 모국의 실상을 가까이에서 체험하지 않았던 작가들 역시 터키의 역사적·사회적 배경으로부터 동 떨어지지 않은 이야기를 서술한다. 이것은 이민자 문학에서 상호문화성이라는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준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터키 출신 이민자 문학은 터키문학과 독일문학 중 그 어느 범주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며, 바로 이 점에서 그들 문학의 독특함이 드러난다. 즉, 독일 내 터키 출신 이민자 문학은 독일과 터키 사이의 여러 문화 내지 문학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다양한 문화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예가 된다고 할 수 있다.<sup>16)</sup>

---

16) Vgl. Carmine Chiellino, a.a.O., S. 135.

## IV. 작품 속 '낯선 것'의 의미 및 조건 분석

### 1. 클라우스 포올: 『아름다운 낯선 여인 Die schöne Fremde』<sup>17)</sup>

#### 1.1. 작가와 작품 분석 관점

1952년에 독일 헤센 주의 도시 로텐부르크 Rotenburg에서 출생한 포올은 연극배우이자 연출가이며 작가이다. 활동 초반부터 지금까지 그는 '독일 문제'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를 문학 작품 속에 형상화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그의 작품 경향은 특히 작가 자신이 '독일 삼부작'이라고 명명했던 『옛 땅 Das alte Land』(1984), 『카라테-빌리 돌아오다 Karate-Billi kehrt zurück』(초연: 1991), 『아름다운 낯선 여인』의 세 작품 속에서 잘 드러난다.

포올은 배우로 활동할 당시에도 사회적으로 '주류층'을 대변하는 인물을 연기하지는 않았다. 그는 주로 뒷골목의 깡패, 뜻대로 되는 일이 없는 세상에서 그저 살인을 일삼는 살인광 등, 사회 속에서 '비 주류층'에 속하는 인물들을 연기하였다.<sup>18)</sup> 물론 다양한 인물의 역할을 소화해내야 하는 것이 배

17) Klaus Pohl, Die schöne Fremde. Weimar'er Fassung. Hamburg 1998: 이 작품은 1991년에 레클링하우젠에서 초연되었고, 1993년 함부르크 공연을 위해 개작된 후, 1998년 뉴욕 공연을 위해 재차 개작되었으며 아직 출판 준비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어진 텍스트는 마지막으로 개작된 1998년 판으로, 2003년 1학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독어독문학과 개설 <현대독일연극론>(김기선 교수)에서 사용된 것이다.

우의 직업적 과제이겠으며, 어떤 배우가 특정한 성격의 역할을 주로 맡아 연기한다는 것은, 그가 그 역할을 분석하고 이해하여 이를 잘 소화해낸다는 뜻일 것이다. 따라서 포울은 사회의 주류층과 비 주류층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각각의 입장을 비교적 잘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류’ 개념이나 ‘비주류’ 개념은 인간 사회에서는 어디에나 존재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점에서, 여러 사회 계층 간의 문화 충돌을 다루는 포울의 작품은 독일의 문제로만 이해될 것이 아니라 범세계적이고 범문화적인 범주에서 분석될 수도 있다. 특히 『아름다운 낯선 여인』은 특정한 타문화권 출신 이주민들에 대한 독일인의 적대감 문제, 최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네오나치즘과 이에 대한 비판, 구 동·서독인들 간의 갈등 등을 소재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광범위한 문화 교류 시대에 세계인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화 간 이해와 조화’ 문제와 관련하여 시의성이 큰 작품이다.

아래 장에서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낯선 여인』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첫째로 타협점 없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내국인으로서의 독일인들과 외국인으로서의 “낯선 여인” 간의 갈등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낯선 것’의 의미를 파악하도록 한다. 여기서 양자 간의 극한 대립이 어느 정도로 각 문화에 대한 이해 결여와, 자신의 문화를 중심으로 ‘낯설고 다른 것’으로 이해된 타문화에 대한 배타적인 자세에서 기인하는 지가 밝혀질 것이다. 둘째로 등장인물 간의 대립 양상을 각 인물의 젠더의식과 관련하여

---

18) Vgl. 김기선, 작가 소개. In: 클라우스 포울, 『아름다운 낯선 여인 Die schöne Fremde』, 김기선 역. 독일문학 회곡선 II.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3, S. 117-126, 여기서는 S. 119.

분석해 본다. 셋째로 이와 같은 문학적 구상이 어느 정도로 작가 자신의 자아 및 타자에 대한 이해와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1.2. 인물 간의 갈등 구조로 본 ‘낯선 것’의 의미

### 1.2.1. 독일인과 비독일인 간 갈등의 구조 및 본질

나치정권의 제 3제국 시절 많은 독일인들은 현실에서 자신들이 불행한 원인을 ‘외국인’에게서 찾는 경향을 드러냈다. 말하자면 ‘악’을 타자화 함으로써 ‘선’을 대변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키우고자 한 셈이다. 독일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국제 사회에서 부여받은 낮은 지위에 대한 불만을 비독일인에게 터뜨리며 자신들이 가져야 할 기회와 경제적 부를 ‘외국인’들이 가로챘다고 하는가 하면, 급기야는 유태인과 집시로 대변되는 ‘외국인’을 공공의 적으로 삼고 이들을 공격함으로써 자기 민족의 단결을 이루고자 하였던 것이다.

포울은 이런 양상이 최근 독일인들 사이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런 움직임의 배경을 최근의 역사적 현실과 관련시키고 있다. 갑작스러운 통일로 인해 경제 사정이 나빠지고, 소련연합의 붕괴와 동유럽 사회주의 정권의 몰락으로 동·서 냉전 체제가 와해되면서 동유럽인들이 대거 가장 인접한 서유럽국 독일로 넘어오게 되자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루터: 이 놈이 바로 그 차 주인이에요. 폴란드 녀석이라구요!  
 크리스티안: (바에서 일어나며 폴란드인과 함께 있는 루터에게 다가간다.) 이봐 루터, 알지! 이 녀석 끌어내! 나는 폴란드 녀석들이라면 딱 질색이라구. 동쪽에서 온 건달 녀석들. 이 녀석들은 모든 걸 더럽힐 뿐이야.  
 Lutter: Da ist der Fahrzeughalter selbst. Ein Pole!  
 Christian: Er löst sich von der Bar, nähert sich Lutter mit dem Polen. Du weißt schon, Lutter! Schaff ihn raus! Ich hasse die Polacken. Das ganze Gesindel aus'm Osten. Das macht hier bloss alles schmutzig.<sup>19)</sup>

여기서 일단 등장인물의 이름만으로도 이들의 시각에 대한 작가의 아이러니가 엿보인다. 우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Martin Luther를 연상시키는 이름을 가졌으며, 구 동독 출신인 루터가 과거 동유럽의 ‘사회주의 형제국’이었던 폴란드의 시민에 대해 드러내는 적대감은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아이러니는 ‘기독교인’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크리스티안 마을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더구나 크리스티안은 형 울리히와 함께 구 동독체제에서 탈출하여 구 서독으로 이주하였다가 통일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인물이다. 이들 마을 형제는 자신들의 귀향 동기를 ‘애국적’이라고 본다. 사업가로서 통일 후 고향사람들이 실업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꺼이 고향 바이마르로 사업장을 옮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들이 튀링엔 지방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며 많은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이 자신들의 사업에 방해가 된다고 불만을 품고 있다. 그 불만은 통일로 변화된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확대되고, 마을 형제는 그런 원망

---

19) Klaus Pohl, a.a.O., S. 17.

을 ‘외국인’ 즉, ‘낮선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키워간다. 그들에게 ‘외국인’이란 정돈되어 있던 ‘독일적인 것’을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더럽히는 존재일 뿐이다.

포울은 이런 독일인들이 겨냥하는 ‘낮선 외국인’이 거의 이주 노동자들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작중 인물들의 편협한 사고를 강조한다. 사실상 이주 노동자들은 독일의 필요에 따라 독일로 이주하여 ‘외국인’이 된 사람들이다. 구 서독은 급격히 성장하는 산업 체제를 감당해 낼 노동력이 부족하여 많은 외국인 노동력을 수용하였으나, 통일 후 구 동독지역에서 새로운 노동력이 생기게 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가 이제 더 이상 독일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쟁자일 뿐이라는 사고는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비합리적일 수밖에 없다. 포울은 이와 같은 비합리성이 예컨대 루터의 말 속에서 드러나도록 한다.

루터: [...] 법 때문이야. 법이 잘못됐다고. 삶보다는 돈을 더 중시하는 권력자들. 그 놈들이 나한테 그러더군 “넌 정말 능력 있는 엔지니어야, 하지만 너무 비싸.” 나는 이상주의자야. 통일 후에 내 꼴이 뭐였냐구. 나는 루돌슈타트의 우체국에서 일해야 한다는거야. 8시간 동안 연필을 내려놓는 일 말이야. 그래. 전에 일하던 곳에서 내가 했던 일을 이제 외국인놈 2명이 한다고. 한 녀석은 터키에서 왔고, 다른 놈은 그리스에서 왔지. 그 녀석들이 더 싸다고. 그 그리스 녀석은 빈 사탕껍질을 여기저기 흘리고 다녀. 사탕껍질은 버리지 말고 넣어 두어야 할 거 아닌가 말이야! 그런데 날이 갈수록 놈들이 더 많아져. 그 외국 놈들이 우리한테서 모든 걸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 정치한다는 녀석들이 그 낮선 놈들을 끌어들었어. 그런데 정상이라면, 정말 내가 하지! 독일인이 아닌 놈들을 똥땅 찾아 독가스로 질식시켜 죽여 버릴 거야!

Lutter: [...] Es sind die Gesetze! Die Gesetze sind falsch! Die

Mächtigen, wo das Geld höher als das Leben. Da haben sie gesagt zu mir: „Ein toller Ingenieur bist du, aber du bis zu teuer.“ Ich bin Idealist. Stand ich da nach der Wende. Zur Post sollt ich nach Rudolstadt. Acht Stunden lang Bleistifte hinlegen. Ja. Zwei Ausländer machen jetzt das, was ich gemacht hab in meinem alten Betrieb. Es sind [ein] Türke und ein Grieche. Sie sind billiger. Der Grieche lässt überall sein Bonbonpapier fallen. Bonbonpapier steckt man doch ein und wirft es nicht weg! Und es werden täglich mehr. Die wollen uns alles wegnehmen. Die Politiker lassen das ganze fremde Gesindel rein. Wenn das normal ist, dann tu ich's wirklich! Dann räucher' ich das ganze undeutsche Gesindel aus, wo es sich versteckt!<sup>20)</sup>

설사 외국인들이 독일에 들어와 값싼 노동력으로 수많은 독일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예절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며, 사탕껍질을 여기저기 버리는 등, 독일의 문화를 존중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독가스로 처형될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루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박해를 외국인/유대인들에 대한 자신들의 박해 방식과 동일한 것으로 지적하며 이주민 노동자들에 대한 자신의 불합리한 적개심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함으로써 결국 자신의 불합리성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루터: 너 어디 살어? 그러니까 내말은 어디에서 왔냐고? 유대놈들은 독일인이 아니야. 그 놈들이 뭘 더 잘하지? 히틀러보다 나은 게 뭐냐고? 그놈들도 히틀러와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그들 고향에서 쫓아내잖아. 그놈들도 지들 땅에 모슬렘들을 두려고 하지 않잖냐고. 게다가 지들을 위해서 허드렛일을 하고, 병원에서 지들

---

20) Ebd., S. 25.

을 돌봐주는 자들까지도 결코 지들 곁에서 사는 걸 허용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터키놈들이 살아야 한다고? 그놈들의 자식들이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다녀도 된다는 거야?

Lutter: Wo wohnst du? Ich meine, woher bist du? Juden sind keine Deutschen. Was machen die besser, die Juden als Hitler? Die schmeissen die Palästinenser doch genauso aus den Dörfern raus. Die wollen doch auch keine Moslems in den Dörfern bei sich haben. Nicht mal diejenigen dulden sie, die die Drecksarbeit für sie machen, die sie in den Siechhäusern pflegen. Aber bei uns sollen die Türken wohnen? Ihre Kinder auf unsere Schulen schicken dürfen?<sup>21)</sup>

여기서 드러나는 아이러니는 작가 포울의 시각을 말해준다.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내쫓았다고 해서, 그것이 히틀러나 루터의 반인륜적 행위를 합리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포울은 인간의 이런 원시적 공격성이 순전히 ‘독일적’ 특성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의 사고방식만도 아니라고 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작가의 의도는 이 작품의 표제인물 “아름다운 낯선 여인”의 행동 방식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일단 “낯선 여인”은 외국인에 대한 독일인의 적대감 내지 네오나치즘의 희생자로 그려진다. 그녀는 극 초반부터 마을 형제와 그 주변 인물들로부터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외국인 윤락녀 취급을 당한다. 또한 그녀는 독일인들에 의해 폴란드인이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신고하지만, 결국 조롱거리가 되어 바이마르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된다.

---

21) Ebd., S. 29.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녀 역시 비합리적이고 편견에 사로잡힌 면모를 지니고 있다. 그녀는 독일인 애인과 결혼을 앞두고, 할머니가 나치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뻔했던 땅을 찾아왔다. 그녀는 할머니의 이야기 속에서 잔혹한 살인마의 모습과 따뜻한 고향으로 그려지는 이중적인 모습의 독일을 직접 보고 느끼기 위해서 독일로 향했다. 바로 이러한 ‘타자’로서 독일의 이중성은 “낮선 여인” 자신의 이중성과 맞물려 있고, 그 둘을 연결하는 고리는 편견이다. 독일을 사랑하되, 결코 독일인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녀의 부모는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서 독일의 자연을 사랑하기는 하나, 그 안에 속한 독일인과 그들의 생활 조건 즉, 문화에 대한 이해는 없다. 독일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수되어 “낮선 여인” 역시 여행 중 기차 안에 함께 있는 독일인들이 차창 밖 아름다운 풍경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불행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우둔하고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여길 뿐이다.

낮선 여인: 정말 아름다웠어. 세 명의 독일 사람들과 한 칸에 같이 탔는데, 그들은 오로지 불행에 대해서만 얘기하더라. 차창 밖으로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는 데도 말이야. 나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또 봤어. 하얀 숲. 회색 빛 하늘 아래 눈 속 깊이, 아주 깊이 파묻혀버린 마을을 말이야. 한번은 선로 근처의 작은 농가가 불꽃에 휩싸여 있었어. 푸른 불꽃이 차창가로 나왔어. 날이 어둑해지고. 빛은 진한 초록색이었지. 그제서야 나는 우리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 우리 부모님께는 독일이 여전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거든. 내가 어렸을 때 “엄마, 독일은 어떻게 생겼어요?”라고 물으면, 우리 부모님은 날 아주 독특한 시선으로 쳐다보셨지. 그리곤 눈물을 흘리셨어. “독일은 정말 아름다워. 독일인만 없다면 말이야.” 지금까지

도 어머니는 독일을 끔찍이 사랑하셔. 기차가 눈 속에 멈춰버리기 전까지 말이야.

die Fremde: Es war herrlich. Ich hab mit drei Deutschen in einem Abteil gesessen, die nur über Unglück sprachen. Während draussen die schönsten Landschaften vorüberzogen. Ich hab gekuckt und gekuckt. Die weissen Wälder. Die Dörfer, die sich tief, ganz tief in den Schnee duckten unter einem steingrauen Himmel. Einmal stand ein kleines Bauernhaus an der Bahnstrecke in Flammen. Das Feuer reckte sich zu den Fenstern hinaus, es dämmerte, ganz grün war das Licht. Da habe ich gedacht, jetzt verstehe ich meine Eltern. Deutschland ist für sie immer noch das schönste Land. Sie haben so seltsam geschaut, wenn ich klein war, und sie gefragt habe: „Mama. Sag. Wie ist Deutschland?“ Da liefen ihr Tränen in die Augen. „Deutschland ist wunderschön. Wenn nur nicht die Deutschen wären.“ Bis heute lieben sie Deutschland so arg. Bis dann der Zug im Schnee stecken blieb.<sup>22)</sup>

이와 같은 애증의 이중 감정에 사로잡힌 채 편견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녀는 결국 자신의 독일인 애인 클라우스마저 의심하게 된다. 애초부터 독일인을 일방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던 “낮선 여인”에게 이제 클라우스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할 독일인일 뿐이다. 그녀는 클라우스의 화목하지 못한 가족관계를 꼬집고, 그가 오로지 자기 일신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가족간의 정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며 클라우스를 비웃는다. 급기야 그녀는 조모와 부모 그리고 자신의 복수를 위해 클라우스를 자극하여 바이마르의 호텔에서 만났던 독일인들을 죽이려 한다. 이러한 그녀의 계획은 독일인을 이용하여 독일인을 응징하려 했다는 점에

---

22) Ebd., S. 65.

서, 말하자면 ‘타자’로서 독일인들 사이의 분열과 전쟁 그리고 그로인한 ‘타자’의 파멸을 피했다는 점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한 히틀러의 잔인함과 유사함을 보인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름다운 낮선 여인』에서 포올은 과거보다 국가 간 이동이나 문화 간의 교류가 용이해진 오늘날 문화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존중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는 것으로 보인다. 타국 출신의 이주민이 원주민들의 문화권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이주민들에게 무조건 이주국의 문화만을 수용하라고 강요한다거나, 또 새로운 문화권 속으로 들어온 이주민이 그 속에서도 자신의 문화만을 고집하며 정착지의 문화를 비하하고 조소한다면, 문화적 충돌로 인한 갈등과 혼란이 여러 문화의 공존을 위한 성숙한 문화의식으로 발전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포올의 『아름다운 낮선 여인』 속에는 특정한 인종에 속하는 가해자나 피해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이민 노동자들을 증오하는 루터는 마을 형제에 의해 부당하게 애견을 잃었고, 루터의 증오심을 부추기던 울리히 마을은 결국 루터에 의해 동생 크리스티안을 잃었으며, 독일인에 대한 이해 없이 증오심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낮선 여인” 역시 비합리적인 증오의 희생양이 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만다. 이 모든 불행의 근원에는 사회문화적으로 전수된, 그리고 의심 없이 받아들인 자기중심적 ‘편견’이 있고, 이러한 편견을 바라보는 포올의 시각은 매우 비판적이다.

### 1.2.2. '여성적' 젠더와 '남성적' 젠더 간의 이분법적 대립 구조

『아름다운 낮선 여인』에는 남녀 간의 갈등이라는 또 하나의 대립 관계가 나타난다. 마울 형제와 로젤 마울 사이의 갈등 및 “낮선 여인”과 ‘바이마르 남자들’ 사이의 갈등이 그것이다. 마울 형제와 로젤의 관계에서 보면 전통적인 남성 중심적 내지 남성 주도적인 남녀 관계 및 성 역할 분담이 그대로, 혹은 극도로 과장된 양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낮선 여인”과 ‘바이마르 남자들’ 사이의 갈등은 다소 복잡적이다. 폭력적이고 파괴적이며 잔인한 쪽이 여성이기도 하고, 그 여성에 의해 농락당하는 쪽이 남성들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포울은 『아름다운 낮선 여인』에서 ‘남성’ 중심의 전통적 성 역할 분담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즉, 전통적 성 담론이 생물학적 성과 일치하는 성 정체성을 정의하고자 (사회문화적 요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남성’과 ‘여성’에게 전자를 기준으로 ‘강한 남성성’ 및 ‘약한 여성성’을 부여함으로써 극단적으로 이분화하고, 전자는 ‘우월한 것’이요 후자는 ‘열등한 것’이라는 신화를 만들었다면, 그런 신화가 포울의 작품에서 그대로 재현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등장인물들을 생물학적인 성에 따라 여성인물과 남성인물로 구분해보면, 이들이 거의 대부분 (전통적인 성 담론의 의미로) 여전히 각각 ‘여성적인’ 특성과 ‘남성적인’ 성향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남성인물들은 거의 대부분 매우 공격적이고 폭력적이다. 마울 형제

는 크리스티안의 아내 로젤의 인격과 지적 능력을 무시하며 언어폭력과 함께 물리적 폭력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사한다.

무시무시한 개를 끌고 다니며 폭력을 일삼는 루터도 마을 형제의 하수인으로서 마을 형제의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에게 거리낌 없이 해를 입힌다. 게다가 그는 맹목적인 '남성적' 충성심에서 중세 독일 기사 문학에 등장하는 영웅들을 동경하고, 이름 때문에 자신을 종교개혁자 루터와 동일시하며, '자랑스러운' 독일인의 혈통을 이어 받은 독일인으로서 조국 독일을 지지분하게 만드는 '외국인'을 처단하고자 하는 신나치주의자이다.

이러한 왜곡된 남성상은 소위 지식인에 속하는 변호사 푸터크테히트의 경우에도 관찰된다. 단지 그는 마을 형제나 루터와는 달리 직접적으로 폭력성이나 공격성을 드러내지 않을 뿐이다. 그 대신 돈과 권력 앞에 무기력한 그는 바이마르 지방에서 변호사로서 인정받으며 명망을 얻고 있으나, 폴란드인의 죽음에 대한 "낮선 여인"의 증언이 사실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마을 형제의 부와 권력 앞에 굴복하는 비겁한 인물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남성상의 유일한 예외는 "낮선 여인"의 약혼자이자 촉망받는 학자 클라우스의 경우뿐이다. 클라우스는 어린 시절에 사탕을 훔쳐 한 입 가득 물고 있던 자신을 (사탕을 훔친 것 때문이 아니라) 사탕 포장지를 아무데나 버렸다는 이유로 꾸중하던 어머니의 비합리적이고 고지식한 사고방식을 비판적으로 꿰뚫어 볼 줄 아는 이성적 인물로 그려진다. 또한 그는 '바이마르 남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자신의 약혼자를 대신해 악을 벌하려는 신의 있고 용감한 사람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낮선 여인』에 등장하는 남성인물들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기존의 성 담론에서 말하는) ‘남성적’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원칙은 여성인물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가령 로젤 마을과 쾨니히 부인의 경우, 기존의 성 담론에서 여성에게 요구하는 ‘여성성’ 내지 ‘여성적인’ 요소들 즉, 수동성, 나약함, 무지함 등을 그대로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식사 후 식탁에서 손으로 입을 가리지도 않은 채 이를 쭈시는 교양 없는 로젤 마을은 마을 형제로부터 인격적인 모욕과 폭행을 당하면서도 반항하지 못하고, 그들의 폭력 앞에서 그들의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명령에 복종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

또한 쾨니히 부인은 폴란드인이 죽었을 때에도, 그리고 “낮선 여인”으로 인해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죽일 때에도 그저 수수방관하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인물이다. 그녀는 폴란드인이 마을 형제와 루터에 의해 살해되던 날 밤에도 “낮선 여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조용한 삶을 방해받고 싶지 않고, ‘외국인’이 가져올 지도 모르는 불행이 두려워 그녀에게 떠날 것을 종용할 뿐이다.

그리고 “낮선 여인”의 경우, 본질론적인 전통적 성 담론이 말하는 전형적인 ‘이중적 여성상’을 한 몸에 드러낸다. “낮선 여인”은 한편으로는 ‘외국인’ 내지 ‘유태인’이 되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 출신으로 부와 지성과 미모를 겸비하고 있는 부드럽고 매력적인 ‘여성성’을 드러내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남성을 파멸로 이끄는 요부이다. ‘바이마르 남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폴란드인과는 달리 독일어에 능하여 독일인들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그녀는 자신을 성폭행하고 바이마르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루터를 재치 있게 따돌린다. 그러나 ‘바이마르 남자들’에 대한 자신의 복수극에 약혼

자 클라우스를 끌어들이고, 자신을 창녀로 인식하는 남자들 앞에서 창녀를 연기하며 그들을 유혹하여 파멸로 이끄는 등의 모습에서는 전통적 ‘여성’으로서 요부의 이미지를 드러낸다. 그리고 이러한 “낮선 여인”도 중국에는 루터의 칼에 희생되는 ‘나약한 여성’에 불과할 뿐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포울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남성적’ 혹은 ‘여성적’ 젠더의식은 (전통적 성 담론에서 규정한 대로) 그들의 생물학적 성(sex)으로서 ‘남성’ 및 ‘여성’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포울이 그러한 ‘남성’과 ‘여성’을 해결점 없는 반목과 갈등 속에서 모두 파멸의 길을 걷는 것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와 같은 ‘남성’과 ‘여성’의 갈등에서 ‘여성’만이 피해자가 아니라 동시에 ‘여성’ 또한 가공할 만한 폭력성을 지닌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전통적인 성 담론의 위험성을 지적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름다운 낮선 여인』에서 그려지는 갈등은 (앞에서도 드러났듯이) 여전히 극도로 이분화 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분화의 틀을 ‘복합적’ 인물 클라우스조차 벗어나지 못한다. “낮선 여인”의 약혼자이자 독일인이며 남성으로서, 『아름다운 낮선 여인』의 핵심적 갈등 관계인 “낮선 여인”과 ‘바이마르 남자들’ 사이에서 해결점 내지 타협점을 제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물조차 해결점을 제시하기는커녕 오히려 “낮선 여인”과 함께 (자신과 같은 남성이자 독일인인) ‘바이마르 남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바이마르로 향한다. 물론 클라우스는 ‘바이마르 남자들’을 향해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낮선 여인”이 창녀 행세를 하며 ‘바이마르 남자들’을 파멸로 이끄는 것을 방관한다. 그 역시 독일에 대한 “낮선 여인”

의 복수에 간접적인 방식으로 동참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독일인과 비독일인 간의 갈등 내지 ‘남성’과 ‘여성’의 갈등 관계에서 독일인이자 남성인 클라우스가 비독일인이자 여성인 “낮선 여인”의 편에 서며, ‘남성’ 내지 독일인으로 대변되는 주류층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역시 ‘여성’ 내지 비독일인이라는 대립 구도의 한 축에 속함으로써 여전히 ‘남성’ 대 ‘여성’ 내지 독일인 대 비독일인이라는 이분화 된 갈등 구조 속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아름다운 낮선 여인』에 나타나는 ‘남성’과 ‘여성’과의 갈등에 일방적인 가해자나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포올이 작품 속에서 이분화 된 갈등 구조의 어느 쪽에도 일방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작가가 등장인물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나 인정은 배제한 채 자신들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 달는 것을 작품 속의 비참하고 끔찍한 장면들을 통해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포올의 문학을 일단 탈 ‘주류 對 비주류’ 문화 문학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결정적인 것은 포올이 어떤 등장인물을 통해서도 극도로 이분화 된 대립 관계를 화해시키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모든 인물을 각각 이분화의 한 축으로 편입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여기서 이분화 된 사고방식으로 사회화 된 작가의 젠더의식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포올은 작품 속에서 ‘남성’ 중심으로 ‘여성’을 비하하거나 왜곡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 서로 이분화 된 갈등 구조를 도입하고 있다. 물론 이런 방식 자체가 포올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포올이 그러한 방식 속에 머무는 한, 극단적이고 비극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성찰에도 미치지 못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2. 아이젤 외짜킨: 『다른 자의 열정 Die Leidenschaft der Anderen』<sup>23)</sup>

### 2.1. 작가와 작품 분석 관점

1942년 터키 동부의 우르파 Urfa에서 태어난 외짜킨은 1980년 9월 12일에 터키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지 3개월 후 <베를린 문학 토론회 Berliner literarisches Colloquium>의 초대로 독일에 오게 된다. 이후 그녀는 터키의 정치적 상황과, 이미 터키 내에서 여성 차별문제를 작품 속에 다루는 작가로 알려진 자신에게 가해질 수 있는 정치적 박해로 인해 독일로 망명할 것을 결심한다.

외짜킨은 그녀 개인의 정체성 및 여성성 문제, 이주민 내지는 망명자 문제, 민족주의 문제, 사회계층 문제 그리고 교육 문제 등 사회 전반에 걸친 테마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력과 냉철한 판단력, 섬세한 필치를 보여줌으로써 독일 내에서 활동하는 터키 출신 여성작가로는 드물게 폭넓은 인정을 받으며 예술가 내지 지식인의 반열에 들게 되었다.<sup>24)</sup>

---

23) Aysel Özakin, Die Leidenschaft der Anderen. Aus dem Türkischen von Hanne Egghardt. Hamburg 1983.

24) Vgl. Carmine Chiellino, a.a.O., S. 43.

1983년에 출간된 작품 『다른 자의 열정』은 독일 내에서 터키 출신 작가가 쓴 초기 이민자 문학에 속한다. 초기 이민자 문학은 대개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접하게 된 다른 문화와 자신에게 익숙했던 문화 사이의 충돌로 인한 이민자의 문화 충격과 정체성 혼란을 작품의 주제로 다루는데, 『다른 자의 열정』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쓰여진 작품이다. 이 작품 전반에 흐르는 기운은 ‘낯선’ 땅에서 느끼는 새로운 삶의 의미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다. 아래 장에서는 이러한 기조를 중심으로 외짜킨의 이민 초기 작품인 『다른 자의 열정』을 분석한다. ‘낯선’ 문화 속에서 ‘낯선 자’로서 겪는 갈등 양상과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추적하여 초기 이민자들이 겪는 정체성 혼란과 문화 충돌 및 문학 생산과의 연관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외짜킨 작품 속의 ‘낯선 것’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 2.2. 일인칭 화자의 갈등 양상으로 본 ‘낯선 것’의 의미

### 2.2.1. ‘낯선 자’로서 겪는 정체성 혼란

『다른 자의 열정』에서 (작가의 자전적 인물로서) 일인칭 화자가 왜 독일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 이 작품은 일인칭 화자가 네 살부터 열일곱 살까지 터키에서 성장한 과정을 설명하는 “작은 연대기 *Kleine Autobiographie*”로 시작되며, 이 연대기는 1980년 9월에 일어난 터키 군사 쿠데타와 함께 끝난다. 그리고 터키

군사 쿠데타에 대한 짧은 설명에 이어, 독일로 망명하기 직전에 일인칭 화자가 독일 여행 중에 겪는 짙은 일화들이 서술된다. 여행은 출발지였던 독일 베를린으로의 복귀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일인칭 화자의 예견과 각오로 끝난다.

일인칭 화자에게 조국 터키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연히 주어진 운명일 뿐이다. 이렇듯 자신의 과거 내지 출생지 문화에 대해 거리를 둔 일인칭 화자의 태도는 “작은 연대기”를 기술하는 어조에서 드러난다. “작은 연대기”에는 조국 터키와 터키 문화에 대한 일인칭 화자의 두드러진 동경이나 비판이 드러나지 않으며, 다만 자신이 ‘터키인’으로 길러지는 과정이 보고서 형식으로 진술될 따름이다.

그러나 일인칭 화자가 “작은 연대기” 속에서 서술하는 성장기 일화들은 터키에 대한 아름다운 회상이 아니다. 국가의 헤게모니를 지키기 위해 행해지는 공공의 폭력과 개인의 희생, 남성 중심의 이슬람 문화에 뿌리박힌 여성에 대한 편견과, 여성들에게 ‘여성성’을 강요하는 관습은 암울한 체험으로 그려진다. 일인칭 화자에게 과거 즉, 자신이 속해있었던 터키 문화는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자신이 겪는 갈등의 ‘원천’이<sup>25)</sup> 되는 것이다.

일인칭 화자가 터키를 떠난 이유는 이전보다 더욱 극단적인 민족주의 경

---

25) Vgl. Aysel Özakin, a.a.O., S. 47: “수잔과 나의 모국어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녀와 함께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이 기쁘다. 어쩌면 나에게 현재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있는 과거로 즉, 현재 내가 가진 개성의 원천으로 말이다. Es freut mich, mit Suzan in meiner Muttersprache reden zu können, mit ihr gemeinsam in die Vergangenheit zurückzukehren, in die Vergangenheit, die mir vielleicht eine Antwort auf die Gegenwart geben kann, zur Quelle meiner jetzigen Persönlichkeit.”

향을 띠며 그녀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신 군부 독재 정권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조국을 떠나 가장 먼저 인식하게 된 것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한 이해나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외국인'으로서 즉, '다른 자'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이다.

기차간에는 침묵과 겸손이 자리하고 있다... 나를 향해 던져지는 관찰하는 듯한 시선들을 마주할 때면, 나는 생각한다. “이제 넌 외국인으로 인식된 거야. 이제 그들은 알고 싶겠지, 네가 어떤 범주의 외국인에 속하는 지를 말아야.”

Im Zugabteil herrscht Stille und Zurückhaltung... Bei jedem Blick, der mich musternd trifft, denke ich: „Jetzt bist du als Ausländerin erkannt. Jetzt wollen sie wissen, zu welcher Kategorie Ausländer du gehörst.“<sup>26)</sup>

독일에서 갖게 된 '다른 자'로서 정체성은 일인칭 화자를 점점 더 혼란스럽게 한다. 더욱이 그녀는 독일에서 가장 낮은 사회계급으로 분류되는 터키인인 것이다. 1961년 이래로 독일에는 많은 터키인들이 독일인들은 기피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 내에서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매우 낮았다. 또한 터키인들의 경우 유럽 지역 출신의 이민자들에 비해 독일 문화와 크게 차이가 나는 문화를 가졌고, 이로 인한 문화간 충돌과 갈등 또한 잦았다. 독일인 내지 유럽인들이 가지는 서구 중심의 문화관에서는 아시아 또는 오리엔탈 문화가 서구의 것보다 열등한 문화로 여겨진다. 외짜킨의 일인칭 화자는 터키 출신 이민자들의 낮은 사회문화적

---

26) Ebd., S. 23.

지위와 터키인에 대한 (특히 극우파) 독일인들의 편견을 인식하고 있다.

방송과 신문지상에는 연일 “터키인 문제”가 떠들썩하게 보도된다. 터키인들의 거주지에는 화염이 솟아오른다. 극우파들은 터키인들에 대해 공격성을 맘껏 드러낸다. 터키인들이 우스꽝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유머가 있다. 그리고 터키인들은 지지분하다, 라는 편견도 여전하다.

Täglich wird im Fernsehen und in den Zeitungen „das Türkenproblem“ breitgewalzt. An türkische Wohnungen werden Bränden gelegt. Rechtsradikale leben ihre Aggressionen gegen Türken aus. Es gibt Witze über Türken. Und noch das Vorurteil: Türken sind schmutzig.<sup>27)</sup>

일인칭 화자는 자신이 세상의 부당한 가치척도와 일방적으로 획일화된 규율에 항거하는 인격체로서가 아니라, 독일의 문화를 잘 알지 못하고 독일 어조차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sup>28)</sup> '외국인'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독일인들에게는 자신이 '낯선 자'이면서, 동시에 '미숙한' 터키인으로 인식될 뿐인 것을 느낀다. 자신이 거부하고자 했던 터키의 문화가 그 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개성보다 먼저 인식되는 코드라는 것을 파악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신이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화 되었던 터키 문화 속에서 이질감을 느끼고, 급기야는 그 문화 속 주류층의 탄압을 받기에 이른 일인칭 화자는 자신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독일로 망명하였으나, 망명지인 독일에서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이나 가치관/세계관과는 다른 즉,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

---

27) Ebd.

28) Vgl. ebd., S. 29: “외국인은 꾸짖을 수 있는 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Ausländer sein bedeutet nämlich, ein Kind zu sein, das man tadeln kann.”

없이 ‘외국인’ 내지 ‘낯선 자’라는 정체성을 부여받는다. 그리고 조국의 문화와는 달리 개방적이며, 일체의 편견을 거부하는 자신의 개성과 정체성을 이해하고 수용해 줄 것이라 믿었던 독일 문화 속에서 일인칭 화자는 어느 문화에도 속하지 못하는 ‘낯선 자’로서 커다란 혼란을 느끼게 된다.

### 2.2.2. ‘낯선 여인’으로서 겪는 정체성 혼란

『다른 자의 열정』의 서두에 나오는 “작은 연대기”는 일인칭 화자가 터키에서 성장하는 과정에 즉, 처음으로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중립적인 태도로 서술하고 있다. 1980년에 일어난 군사 쿠데타에 이어 들어선 군사 독재 정부는 강한 터키를 만들기 위해 국가 전체를 군대식으로 운영한다. 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성적’ 코드인 ‘힘’이 필요하다. ‘힘’의 논리에서 볼 때 여성들은 거추장스럽고 불필요한 존재이며, ‘여성성’은 남성들이 ‘힘’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물이 된다. 따라서 군사 독재 정부가 여성들에게 강요하는 전통적인 ‘여성성’은 여성에 대한 극단적인 억압이 된다.

여성들에게는 진한 화장, 몸매를 강조하는 몸에 꼭 끼는 바지와 원색적인 복장 착용이 금지된다. 그 외에 남자들과의 대화 역시 금지된다.

Frauen und Mädchen wird starkes Schminken, das Tragen von engen Hosen, die die Körperform betonen und Kleidung in grellen Farben verboten. Außerdem ungehöriges Reden mit Männern.<sup>29)</sup>

“작은 연대기”의 마지막에 서술되고 있는 군사 독재 정부의 여성 억압 정책은 일인칭 화자로 하여금 독일로 망명할 것을 결심하게 한 직접적인 이유이며, 이는 일인칭 화자가 ‘여성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암시한다. 일인칭 화자가 가장 부당하다고 느끼는 남성들의 자기중심적 태도는 그들이 여성을 소유물로 여긴다는 것이다. 대학 시절 일인칭 화자는 아이쿠트라 는 남학생과 입맞춤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경고를 받게 되고,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고향으로 데려 간다. 그녀의 오빠는 자신의 동생과 입맞춤을 한 남학생이 부모와 함께 자신의 가족을 방문하여 정식으로 청혼을 하고 약혼까지 한 후에도 동생을 용서하지 않는다. 일인칭 화자의 오빠가 드러내는 태도는 그가 ‘여성’인 동생을 ‘남성’인 자신의 소유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신의 소유물을 다른 남성이 범했다는 것은 남성으로서 자아 정체성에 중대한 오명을 남기게 된다.

남성성에 대한 남성의 이런 강한 자의식은 일인칭 화자의 남자친구 아이쿠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각되어 있다.

[...] 그래, 아이쿠트는 괜찮은 남자였지. 하지만 질투가 너무 심했어. 언젠가 둘이 같이 버스를 타고 가는 길이었어. 내가 아는 남자한테 손을 흔들었지. 아이쿠트는 화가 나서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 “나랑 같이 있을 때, 다른 어떤 남자한테도 인사하지마, 그게 네 오빠여도 안 돼!”

[...] eigentlich war er [Aykut] ein netter Junge. Aber er war unglaublich eifersüchtig. Einmal, als wir zusammen im Bus fahren, winkte ich einem Bekannten zu. Aykut wurde böse und sagte: „Wenn du mit mir unterwegs bist, dann hast du niemanden so zu grüßen, nicht ‘mal deinen eigenen Bruder!“<sup>30)</sup>

---

29) Ebd., S. 12.

일인칭 화자가 후에 약혼자와 이별하는 이유도 '남성'으로서 그의 지나친 자의식으로 인한 질투 때문이다. 이런 남성 중심적 인간관은 주인공에게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낯선 것'이다.

“작은 연대기”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여성성’을 배운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녀가 거부하는 ‘여성적인’ 성 정체성을 그녀에게 학습시킨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여성이라는 것이다.

내 나이 열한 살. 나는 여전히 천사가 되는 길을 찾고 있다. 나는 할머니의 조언을 듣는다. “여자아이가 천사가 되려면 말이다. 결혼할 때까지 반드시 얼굴과 손을 제외한 몸 전체를 가리고, 그 어떤 남자도 만지지 못하도록 해야만 한다.”

Ich bin elf Jahre alt. Immer noch suche ich nach Möglichkeiten, ein Engel zu werden. Ich höre auf die Ratschläge meiner Großmutter: „Ein Mädchen kann nur dann ein Engel werden, wenn sie außer Gesicht und Händen alle ihre Körperteile bedeckt und sich von keinem Mann berühren läßt, bis sie heiratet.“<sup>31)</sup>

여성인물 중 어느 누구도 주인공이 ‘여성’으로서가 아닌 다른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도록 모델이 되지 못한다. 가령 독일 여행 중 그녀가 만나게 되는 대학 친구 수잔도 사회주의 신봉자로서 대학시절에는 적극적으로 남학생들과 함께 토론하며 자신이 믿는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해 열성적으로 활동했던 인물이었다. 여성들에 대해 보수적인 터키에서 수잔은 전통적 개념의 ‘여성’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페미니즘과 관련하여 배타적인 입장을 보인다. 세계는 자본주의 논리가 지배하고, 이로 인해 발생

---

30) Ebd., S. 52.

31) Ebd., S. 8.

한 계층간 불평등은 많은 폐해를 낳음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들은 고작  
여권 신장을 부르짖을 뿐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수잔은 소위 '여성문제'  
가 자본주의적 서구 패권주의 및 서열화 된 계층 간 불평등 문제와 구조적  
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그녀에게 '여성문제'는  
자본주의의 모순이 극복 된 이후에 다루어도 늦지 않는 이차적 문제에 불  
과하다.

이와 같이 '남성' 중심의 성 담론이 남·녀를 불문하고 사람들의 의식 속  
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전통적인 성 담론과 그 모순에 대  
해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찾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폐쇄적이고 보수적  
인 터키 문화 속에서 일인칭 화자는 '의사소통'의 문제를 느끼고 결국 독일  
로 향하게 된다.

그러나 독일에서도 '낯선 이국 여성'으로서 일인칭 화자가 느끼는 성 정  
체성 혼란의 문제는 "유럽여자처럼 춤추기 Tanzen wie eine Europäerin"<sup>32)</sup>  
라는 생각으로 표면화되는 '유럽여성'과 자신의 비교를 통해 구체화된다. 이  
것은 일인칭 화자가 자신에게 부여된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을 더 이상  
남·녀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각기 다른 문화에서  
형성된 '여성적' 성 정체성의 상이함을 체험하면서 더욱 구체적으로 인식하  
기 시작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큰 방에서 사람들은 춤을 추고 있다. 나도 다른 사람들 속에 섞  
여서 혼자 춤추고 싶다. 하지만 내 몸짓 하나하나로 나 자신을  
설명하고 증명해야 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너한테 어울리

---

32) Ebd.

지 않아, 우리처럼 춤추는 것 말이야. 록 음악은 우리 문화의 산물이야. 넌 너희 문화에 어울리는 음악에 맞춰 터키 여자답게 수줍은 동작으로 춤을 추라고.’

Im großen Raum wird getanzt. Ich möchte mich unter die anderen mischen und ganz allein tanzen. Aber ich habe das Gefühl, als müßte ich mich mit jeder Handlungen selbst erklären und beweisen. ‘Es paßt nicht zu deiner Persönlichkeit, daß du wie wir tanzt. Rock ist das Produkt unserer Kultur. Du bleibst bei deiner eigenen Musik, bei deinen eigenen Tänzen, in der Passivität deiner eigenen türkischen Frauen.’<sup>33)</sup>

여기서 일인칭 화자가 자신의 정체성과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을 동일시하는 외부의 일반적인 시각을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일인칭 화자는 독일이라는 ‘낯선’ 문화 속에서 ‘낯선 터키인이자 동시에 여성’인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녀가 터키의 주류 문화와 끊임없이 충돌하여 이에 따른 갈등으로 인해 독일 문화를 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터키 문화는 그녀에게 ‘낯선’ 문화 속에서 더욱 더 강요된다. 터키에 살던 시절 그녀가 이해할 수 없었던 ‘낯선’ 터키 문화가 이제 그녀 ‘자신의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일인칭 화자는 또한 자신에 대해서 독일인 내지 유럽인들이 ‘전형적인 터키 여성’과 ‘다르다’거나, 자신들과 ‘비슷하다’라고 파악할 수도 있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일인칭 화자는 자신의 정체성이 유럽인의 것과 동일화 된다고 해서, 그것이 터키의 보수적인 문화 속에서 확립하고자 했던 ‘자신의’ 정체성이 인정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결국 외짜킨의 문학적 자아는 더욱 더 복잡한 구조 속에 ‘낯선 자’로서 남을 뿐이다.

---

33) Ebd., S. 35.

나는 문득 나중에 요하네스가 나를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해진다. ‘그녀는 보통의 터키 여자들과는 달랐어. 유럽 여자 같았지. 우리 처럼 말이야.’ 그가 그렇게 말하게 될까봐 두렵다. 동양 여자가 유럽 여자 같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개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Plötzlich frage ich mich, was er [Johannes] wohl später einmal über mich sagen wird. ‘Die ist nicht wie eine türkische Frau, die ist wie eine Europäerin, wie wir.’ Ich habe Angst davor, daß er das sagen könnte. Denn ich habe Angst, daß es für sie bedeuten könnte, man verliere seine Persönlichkeit, wenn man als Orientalin wie eine Europäerin ist.<sup>34)</sup>

### 2.2.3. 작가로서 겪는 정체성 혼란

『다른 자의 열정』의 일인칭 화자는 작가의 자전적 인물이다. 외짜킨의 문학적 자아가 독일로 망명할 것을 결심한 것, 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 독일에서 ‘독자와의 만남’을 위한 여행을 하게 된 것도 모두 작가라는 그녀의 직업 때문이다. 일인칭 화자의 정체성 형성이 그녀가 ‘글을 쓴다’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글을 쓰는 작업이 일인칭 화자에게는 자아정체성을 구성해 가는 과정인 것이다.

일인칭 화자는 ‘독자와의 만남’에서 가장 자주 받게 되는 질문 즉, ‘왜 글을 쓰는가’, 혹은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린 터키 신문을 독일의 기차역에서 구입한다.

---

34) Ebd., S. 37.

자비네는 우리 축구 영웅과의 이별을 견디지 못했다.  
Sabine ertrug die Trennung von unserem Fußballer nicht.

일리아스의 애인 자살. 미모의 21세 독일 여성이 화요일 이른 아침 그녀의 집 지하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Geliebte von Ilyas beging Selbstmord. Das hübsche, 21jährige deutsche Mädchen wurde Dienstag früh im Keller ihres Wohnhauses tot aufgefunden.

미모의 독일 여성인 헬렌은 자신의 터키인 남편 메메트를 찾기 위해 지중해로 왔다. 이 젊고 아름다운 여성은 사진을 들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묻는다. 이 사람이 제 남편인데요, [...] Helen, eine deutsche Schönheit, kam ans Mittelmeer, um ihren türkischen Ehemann Mehmet zu suchen. Die junge, hübsche Frau fragt mit einem Bild in der Hand jeden: Das ist mein Mann, [...]<sup>35)</sup>

외짜킨의 일인칭 화자는 이 기사를 통해서 남성 중심주의적 사고방식이 두드러진 터키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각 성에 대한 특성 규정과, '여성'들 사이에도 적용되는 모종의 서열화를 부각시킨다. 기사 속에 등장하는 남성들은 "우리 축구 영웅"이나 '우리 남자'로, 이에 반해 여성들은 "미모의 젊은 독일 여성"으로 일컬어진다. 즉, '남성적-우월한' 자문화에 대한 의식이 지배하는 터키 신문 기사에 등장할 가치가 있는 여성은 첫째로 '서구' 여성이고 (첫 번째 기사의 경우 여성의 이름을 통해 그녀가 독일인임을 유추할 수 있다), 둘째로 젊으며, 셋째로 미모를 지녔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사에 실린 여성은 모두 남성에게 얽매어 있다. 첫 번째 기사는 "우리 축구 영웅"과의 이별을 견디지 못하는 '여성' 자비네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다. 두 번째 기사에 등장하는 여성은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일리아

---

35) Ebd., S. 56.

스의 애인”으로 지칭된 이 여성의 자살은 남성인 일리아스와의 갈등과 이를 극복하지 못한 연약한 여성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또한 세 번째 기사에 등장하는 “미모의 독일 여성인 헬렌”은 터키인 남편을 찾기 위해 지중해까지 와서 절망에 빠진 나약한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외짜킨은 이러한 신문 기사를 통해 “강한 남자, 예쁜 (개방적이며 단순한) 유럽 아가씨들이 따라 다니는 강한 터키 남자, Der starke Mann, der starke türkische Mann, dem die schönen (freien, leichten) europäischen Mädchen nachlaufen”<sup>36)</sup>라는 식의 남성 중심으로 고정된 성 개념을 지적한다. 그리고 서양에서든 동양에서든 남성 주도적으로 행해지는 ‘강하고 우월한’ 자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내포하는 “민족주의 Nationalismus”와 ‘여성성’을 강요하는 “여성차별주의 Sexismus”<sup>37)</sup>에 대한 비판 및 거부가 자신이 글을 쓰는 이유라고 밝히고 있다.

일인칭 화자는 글을 쓰는 작업을 통해 여성 내지 개인의 개성을 무시하고 획일화 하려는 집단적 폭력에 항거한다. 여기서 집단적 폭력이란 전통적인 성 담론에서 일어나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규정이고, 동시에 그렇게 만들어진 성 규범 및 성 정체성을 강요하는 일반적 인식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타문화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 자문화 중심으로 ‘낯선’ 타문화를 평가하려는 움직임 역시 이런 ‘폭력’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고, 외짜킨이 그런 움직임을 따르지 않았던 것도 설명된다.

따라서 외짜킨에게 ‘글을 쓴다’는 것은 사회·문화 속에 존재하는 다양성

---

36) Ebd., S. 57.

37) Ebd.

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녀는 새롭게 수립된 터키 군사 정부의 독재와 획일화 정책에 반발하다 사형당하는 많은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 위함도 자신이 글을 쓰는 이유라고 밝힌다. 이와 같이 문학은 그녀의 개성과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관대한 문화의 장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일인칭 화자에게 있어서 독일 망명은 작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인칭 화자가 글을 쓰는 작업을 통해 자신의 자아정체성 및 성 정체성을 완성해 나간다는 것과 관련하여 볼 때, 망명은 '나'를 찾기 위한 구도의 길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외짜킨의 일인칭 화자가 작가로서 갖는 정체성이 독일에서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신의 작품을 수용하는 독일인들이 그녀의 작품을 그녀의 자전적인 이야기와 동일시함으로써 자신의 작품이 독일인들에게 터키라는 '낯선' 문화를 소개하는 것에 그칠 수 있고,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이야기는 '독일에 사는 터키 출신의 낯선 여인'의 삶과 애환으로 축소된다는 것이다. 독일인들이 기대하는 즉, 억압받고 수줍은 (독일 거주) 터키 여성과 자신은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인칭 화자가 글 쓰는 작업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예술가/작가로서 자신의 창작물이 단순한 사실 설명 내지는 보고로 파악되는 것이 진정한 예술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는 모습도 이해할 수 있다.

터키 여자 즉, 독일에서는 억압받고 수줍은 인간의 전형으로 인식되는 존재, 그러나 나는 그런 존재와 비슷하지 않다. 내 존재의 다름... 내가 글로 써낸 존재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내가 썼던 것은 창조적 작품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나는 단지 호기심을 일깨울 뿐이다. 혹은 '독일에 사는 터키 여자'라는 진기한 테마에 대해 정보를 줄 뿐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내 작품에서, 내게 정체성을 마련해줄 수도 있었을 나의 작품에서 나를 떼어놓는다. 그렇게 나와 내 작품 사이의 연결고리는 차단되는 것이다. Die türkische Frau, in Deutschland der Prototyp des unterdrückten, schüchternen Menschen, und ich bin ihm nicht ähnlich. Mein Anderssein... Mit dem, was ich schreibe, kann sich niemand identifizieren, das, was ich geschrieben habe, wird nicht als schöpferisches Werk betrachtet. Ich wecke lediglich Neugierde, oder gebe Informationen über dieses seltsame Thema 'türkische Frau in Deutschland'. So entfernt man mich von meinem Werk, das mir Identität verschafft hätte, so wird die Bindung zwischen mir und meinem Werk unterbrochen.<sup>38)</sup>

### 3. 포올과 외짜킨: '낮선 곳'으로 떠나는 여행의 의미

#### 3.1. 상이한 여행 동기와 결과

포올의 『아름다운 낮선 여인』에서 주인공인 “낮선 여인”과 외짜킨의 『다른 자의 열정』에서 일인칭 화자는 모두 자신들에게는 ‘낮선 곳’인 독일로 여행을 떠난다. 여기서 이들은 모두 ‘외국인’ 또는 ‘낮선 자’들이다. 또한 “낮선 여인”의 경우는 독일 남자와 결혼 할 예정이며, 『다른 자의 열정』의 일인칭 화자는 ‘독자와의 만남’을 위해 독일 여행을 시작하기 전 잠

---

38) Ebd., S. 38f.

시 한스라는 독일인 남자 친구를 두었었고 독일로 망명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둘 다 독일이라는 지역적·문화적 영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 모두에게 독일 여행의 의미는 독일 문화에 대한 이해와 반드시 연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독일 여행의 의미는 실제로는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첫 째로 여행 동기의 상이함 때문이다. 포울의 “낮선 여인”의 경우, 자신의 부모와 조모가 나치 정권 시절 독일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잊지 못하는 독일 즉, 이른바 괴물 같은 독일인과 아름다운 독일의 자연 환경을 스스로 느껴보고자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독일로 향한다.

이에 반해 외짜킨의 “다른 자”는 “인간 즉, 내가 정치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터키인과 독일인에게 신뢰와 가까움을 느끼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다, *Vielleicht bin ich auch aus diesem Grund auf die Reise gegangen, um Vertrauen und Nähe zu Menschen zu spüren, Türken und Deutschen, denen ich mich politisch verbunden fühle*”<sup>39)</sup> 라고 여행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전자는 독일에 대한 모종의 반감과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여행을 시작했고, 후자는 자신에게 ‘낮선’ 독일 문화와 자문화인 터키 문화 사이의 공통점 내지는 소통 가능성을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난 것이다.

둘째로 포울의 “낮선 여인”과 외짜킨의 “다른 자”는 문화적 맥락에서의 ‘낮선 것’을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들 수 있다. 전자의 경우,

---

39) Ebd., S. 16.

작품 전반에서 독일 문화 내지는 자신에게 ‘낯선’ 문화에 대한 이해나 화해를 위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포울의 “낯선 여인”이 보는 독일인은 결코 이해하거나 화해할 수 없는 ‘낯선 자’들일 뿐이며, 자신 역시 독일인들에게 ‘낯선 자’일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다.

이에 반해 후자는 끊임없이 ‘낯선 것’의 의미에 대해 고민한다. 『다른 자의 열정』에 등장하는 일인칭 화자에게 있어서 ‘낯선 것’은 자신에게 ‘낯선’ 문화나 ‘낯선 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낯선 것’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문화 충돌과 충격이라는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지 않는다. 자문화 내지 자신의 것을 중심으로 ‘다른 것’을 평가하지 않는 화자의 ‘낯선 것’에 대한 인식 방법은 조화로운 문화 간 교류의 방법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3.2. 작가가 지닌 젠더의식과의 연관성

포울의 『아름다운 낯선 여인』과 외짜킨의 『다른 자의 열정』은 모두 그 주인공들이 여행을 한다는 점에서, 또한 여행 중에 겪은 사건들을 중심으로 줄거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여행문학의 범주에서 이해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포울과 외짜킨의 예를 통해 문학 장르로서의 여행문학이 창작 주체의 젠더의식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겠다.

독일문학사에서 여행문학이 전성기를 구가하던 때는 시민 사회의 정착과 함께 시민 계급의 정치적 주체 의식과 개인주의적 성향이 증가하던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의 시기로 기록되고 있다. 이 시기는 새로운 학문의 발달로 교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던 때였다. 특히 당시에 유럽 이외의 다른 대륙이 '발견'되면서 넓어진 세상에 대한 시민 계층의 호기심 및 정보욕구와 맞물려 여행문학이 두드러지게 발달하게 된 것이다.<sup>40)</sup>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여행문학이 전통적으로 여성작가들의 장르로 이해되어 왔고, 그 내용 또한 자전적 요소가 많다는<sup>41)</sup> 점이다. 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문학이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던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였고, 이와 마찬가지로 남성작가들 사이에서 작가로서 설 자리를 얻을 수조차 없었던 시절에 여성작가들은 단지 '가벼운' 문학 장르로 이해되던 여행문학을 담당할 수 있었다. 바로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대부분의 여성작가들은 어디에서도 자유롭게 쓸 수 없었던 자신의 경험과 사고 세계를 여행문학에서 주로 다루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여성작가들이 쓴 여행문학의 가치는 문학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문학의 모든 공식적인 영역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행문학에서도 대표자는 역시 남성작가였으며, 현실적인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여성작가들이 공식적으로 자리 잡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sup>42)</sup> 전통적 문학사에서 대표적인 여행문학 작품으로는 괴테 Johann Wolfgang von Goethe의 『이탈리아 여행

---

40) Vgl. 김륜옥, '여성적/주관적' 문학? - 여성 작가들에 대한 성 차별주의적 문학 담론에 대하여. In: 독일어문학 제 7집 (1998), S. 193- 210, 여기서는 S. 201.

41) Vgl. Annegret Pelz, Reisen durch die eigene Fremde. Reiseliteratur von Frauen als autogeographische Schriften. Köln u.a. 1993.

42) Vgl. 김륜옥, '여성적-주관적' 문학?, a.a.O., S. 202.

Italienische Reise』이 언급될 뿐, 예컨대 이다 하안-하안 Ida Hahn-Hahn의 『오리엔트 편지 Orientalische Briefe』에 대한 언급은 지극히 드물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여행문학을 쓰는 작가의 성별 내지 젠더 의식에 따라 문학적 도구로서 여행의 의미가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점이다. 여행을 작품의 핵심 소재로 다루던 그리스 서사문학이나 중세의 기사문학을 살펴보면, 젊고 지혜로우며 강한 영웅적 남성은 자신의 꿈을 펼치고 미지의 무언가를 정복하기 위해 ‘낮선 곳’으로 여행을 떠난다. 남성영웅은 여행 중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나, 결국 이를 모두 극복 내지 정복하고 금의환향한다는 것이 전형적인 서사의 틀이다.<sup>43)</sup> 이와 같이 ‘남성적’ 젠더의식이 낳은 여행문학에서는 갈등과 대립 그리고 정복이 작품을 구성하고 있다. 남성작가의 ‘남성적’ 젠더의식은 흔히 문학 속에서 여행의 의미를 ‘미지의 것’ 내지 ‘낮선 것’의 정복에 둔다. 다시 말하면, ‘낮선 것’을 배우고, 자신 안에도 존재하는 ‘낮선 것’을 인식하는 차원의 자기체험 내지 세계체험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여성작가의 여행문학에서 여행은 흔히 전혀 다른 구성과 의미를 드러낸다. 여기서 여행은 여성으로서 현실에서 받는 억압과 이 억압에 대한 반발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장이 된다. 즉,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 및 일방적인 성 역할 분담에서 벗어나 주체로서 자주성을 지향하는 여성들의 의식이 여행문학을 통해 드러난다.<sup>44)</sup> 여성작가들의 여행문학에서 ‘낮선 곳’을 향한 여행은 ‘낮선 것’의 정복을 통한 ‘영웅적’ 자아 구성 욕망의 실현을

---

43) Vgl. 김륜옥, 헤르만 헤세와 ‘낮선 것’의 구조 및 의미, a.a.O., S. 45f.

44) Vgl. 김륜옥, ‘여성적-주관적’ 문학?, a.a.O., S. 203.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현실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소망이 담겨 있다. 문학이 현실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탈출구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적’ 젠더의식이 만들어낸 여행문학에서는 ‘낮선 것’과의 대립 및 갈등이 ‘낮선 것’의 정복을 통해 해소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낮선 것’을 배우고, ‘낮선 곳’에서 자신에게 ‘익숙한 것’으로 여겨져 온 것들을 비판적 시각으로 성찰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성찰 속에서 문학적 여성 자아는 자신 안에 존재하는 ‘익숙한 것’의 ‘낯섦’을 인식하게 된다.

이처럼 사회문화적으로 생성된 작가의 젠더의식에 따라 여행의 의미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양상은 포울의 『아름다운 낮선 여인』과 외짜킨의 『다른 자의 열정』에 그려지는 여행에서도 관찰될 수 있다. 포울의 “낮선 여인”이 떠나는 여행이 예의 저 남성작가들의 ‘남성적’ 젠더의식이 만들어낸 여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낮선 여인”이 ‘남성적’ 젠더의식을 가지고 여행을 했다고도 할 수 있다. “낮선 여인”은 처음부터 독일인을 제외한 독일만을 체험하고자 여행을 시작하였다. 독일인은 “낮선 여인”에 있어서 극복해야 할 대상일 뿐이며, 그녀는 독일인들로부터 자신도 부모와 조모가 겪었던 수모를 당하게 되자 이들에 대해 복수를 하게 된다. 독일 여행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에서 “낮선 여인”과 ‘낮선’ 독일인 사이에는 단지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만이 존재할 뿐이며, “낮선 여인”은 자신의 약혼자가 독일인임에도 불구하고 화해를 위한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낮선 여인”의 독일인 약혼자 클라우스는 “낮선 여인”에 의해 독일인 간의 대립과 갈등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심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된다.

포올은 (외짜킨처럼) 『아름다운 낯선 여인』을 통해서 독일 내에서 ‘주류층’인 독일인을 중심으로 한 배타적 “민족주의”와, 남성을 중심으로 한 여성의 성 역할 규정 내지 “여성 차별주의”에 대한 비판을 시도했을 수도 있다. 포올이 독일의 주류층에 속할 수도 있는 남성작가임에도 불구하고 ‘비 주류층’이 겪는 문제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그의 작품이 탈 ‘주류 對 비주류’ 문화 문학으로 파악될 수 있었다. 그러나 포올이 자아 성찰과 비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 여행은 남성작가들에 의해 사용되어 온 ‘낯선 것’과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정복이라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즉, 포올이 그리는 여행은 ‘낯선 것’을 정복함으로써 자아실현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전통적 남성작가들이 써왔던 여행문학의 형태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외짜킨의 『다른 자의 열정』에서 작품 속 일인칭 화자는 자주적 주체로서의 자신을 여성이라는 이유로 억압하는 민족주의적 내지 가부장적 터키 문화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독일로 망명할 것을 결심한다. 또한 갑작스럽게 주어진 ‘낯선’ 문화 속에서 일어나는 자아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해답을 찾고자 독일로 여행을 떠난다. 일인칭 화자의 이러한 여행 동기는 예전 여성작가들의 여행문학 속에 그려지는 동기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외짜킨은 여행 중에 겪게 되는 ‘낯선 것’과의 충돌과 대립을 ‘낯선 것’의 정복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해를 통해서 ‘낯선 것’과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점에서 예전 여성작가들이 이루어온 여행문학의 전통을 잇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여기에서도, ‘여성’으로 사회화된 작가 외짜킨의 성 정체성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낮선 것'의 상이한 의미 및 조건

포올의 『아름다운 낯선 여인』과 외짜킨의 『다른 자의 열정』은 상이한 문화가 충돌하는 가운데 각 개체가 겪는 문화 충격과 정체성 혼란 및 갈등이라는 공통된 소재를 갖는다. 그리고 두 작가 모두 이런 소재를 다룸으로써 문화 간의 이해와 소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도 유사한 의도를 드러내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작품 속에서 '낯선 것'은 상이한 의미를 갖는다. 『아름다운 낯선 여인』에서 '낯선 것'은 '나'를 중심으로 나누어진 '타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다른 자의 열정』에서 '낯선 것'은 '너'의 모습이자 동시에 (상대적으로는) '나'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상이한 의미는 각 작가가 작품을 집필하기까지 접했던 사회문화적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각 작가가 어떠한 사회문화적 조건 속에서 자아 및 성 정체성을 형성하였는지가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우선 독일 내에서 '주류' 문화에 속하기를 거부하는 포올은 (유태인으로 대변되는) '낯선 것'에 대해 일단 열린 입장을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문화 충격으로 인한 혼란과 갈등의 양상을 파악하고 문화 간의 상호배타적인 반목을 비판하고 있다. 다만, 독일이라는 문화 조건 하에서 '낯선 자'로서 정체성을 가져본 적이 없는 포올의 작품에서는 갈등의 극복을 위한 가능성이 제시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무엇보다 포올의 작품 속에서

는 ‘낮선 것’이 ‘나’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하는 인물이 없다.

마찬가지로 포올은 일단 타문화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가 어리석음을 밝히면서 ‘남성’ 중심으로 왜곡되고 타자화 된 ‘여성’에 대해서 주목하는 흔적을 보인다. 예컨대 기존의 성 담론에서처럼 ‘이성’ 대 ‘감성’, ‘가해자’ 대 ‘피해자’ 등의 이분법을 반드시 ‘남성’ 대 ‘여성’으로 대체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남성작가 포올은 젠더의식 역시 ‘반목 원칙’에 따라 극단적인 이분법으로 나누고 있으며, 그 전략도 제외와 소외 즉, ‘중심’에서 제외된 것의 타자화를 벗어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포올의 작품에서는 ‘낮선 것’이 ‘낮선 대로’ 인정되고, 문화 충격이 문화 간의 이해와 화합으로 발전하는 양상이 나타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비해 (문자 그대로) ‘낮선 곳’에서 ‘낮선 자’로서 자신을 체험하며 기존의 자아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겪은 여성작가 외짜킨의 작품에서는 문화 충돌 및 충격으로 인한 갈등이 (포올의 경우처럼) 극단적으로 이분화된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외짜킨의 작품에서 문화 충격으로 인한 주인공의 정체성 혼란은 결국 ‘낮선 것’을 ‘낮선 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움직임 즉, 새로운 문화에 적합한 자아의 정체성 형성 내지는 변형을 통해 극복된다.

마찬가지로 사회문화적으로 ‘여성성’을 키울 수밖에 없었던 조건 하에서 성 정체성을 형성한 터키 출신 여성작가 외짜킨의 경우, 문화 간의 이해 문제에 있어서도 (사회문화적으로 길러진 대로) ‘모성애’를 발휘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것은 ‘낮선’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하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수용적인 태도에서 드러난다. 여성작가 외짜킨은 문화 충격으로 인해 발생

한 갈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타문화의 변화 내지 타자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기 보다, 오히려 자신의 내부에서 새로운 문화에 적합한 정체성의 변형을 통해서 그 방안을 찾는 것이다. 대립이나 경쟁, 혹은 승리가 아닌 이해와 화합, 그리고 수용 및 포용을 추구하는 방식에는 수천 년간 ‘남성’을 중심으로 사회화된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 말하자면 ‘여성적’ 유연성이 크게 작용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두 작가의 경우에서 드러나는 ‘낯선 것’의 상이한 의미, 혹은 문화 충격 및 이로 인한 혼란과 갈등이라는 문제에 접근하는 작가들의 상이한 방식에는 사회문화적 영향 하에 형성된 그들의 서로 다른 문화적 및 성적 젠더의식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작용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따라서 작가의 성 정체성 즉, (특정한 특성을 표시하는 기호로서) ‘남성적’ 혹은 ‘여성적’ 젠더의식과 문학 생산의 관계는 매우 긴밀하다고 할 수 있다.

## VI. 연구 전망

‘남성’ 중심의 이분법적 기존 성 담론은 전통적으로 사회 및 문화에서 주도권을 차지했던 남성들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여성적인 것’은 곧 ‘열등한 것’이라는 규정은 지배 대상과 더불어 위계질서를 규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고정된 ‘성’ 개념은 남녀 간의 관계 규정만으로 끝나지 않고, 예컨대 문화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데에서도 이용되고 있다. 문화의 범주 안에도 분명히 ‘여성적-열등한’ 문화와 ‘남성적-우월한’ 문화의 구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식민지 시대의 정복자 문화와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의 경제대국 문화가 ‘남성적-우월한 것’으로 이해되는 것처럼 말이다.

문화 교류가 삶의 필수 조건이 된 오늘날 각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화합은 반드시 도모될 필요가 있다. 문화 교류가 있는 곳에서는 문화 간 대립도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 문화의 특수성 및 공통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문화간의 조화로운 화합을 추구하는 젠더연구의 관점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성은 젠더연구 관점에 기반을 둔 상호문화성과 문학의 관계에 주목하는 연구의 의의를 뒷받침한다. 문학 속에서 그려지는 젠더 의식 그리고 문화 충돌과 갈등 구조에 대한 연구 및 그 결과는 문화 간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의식 변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아직 소수의 관심 속에 머물고 있는 이런 관점의 필요성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토론과 연구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Primärliteratur

Özakin, Aysel: Die Leidenschaft der Anderen. Aus dem Türkischen von Hanne Egghardt. Hamburg 1983.

Pohl, Klaus: Die schöne Fremde. Weimar'er Fassung. Hamburg 1998.

(이 작품은 1991년에 레클링하우젠에서 초연되었고, 1993년 함부르크 공연을 위해 개작된 후, 1998년 뉴욕 공연을 위해 재차 개작되었으며 아직 출판 준비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어진 텍스트는 마지막으로 개작된 1998년 판으로, 2003년 1학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독어 독문학과 개설 <현대독일연극론>(김기선 교수)에서 사용된 것이다.)

## 2. Sekundärliteratur

Ackermann, Irmgard (Hrsg.): Fremde Augenblicke - Mehrkulturelle Literatur in Deutschland. Bonn 1996.

Benhabib, Seyla: Selbst im Kontext, Kommunikative Ethik im Spannungsfeld von Feminismus, Kommunitarismus und Postmoderne. Aus dem Amerikanischen von Isabella König. Frankfurt a. M. 1995.

- Benjamin, Walter: Gesammelte Schriften, Bd. IV/1, hrsg. v. Tilman Rexroth. Frankfurt a. M. 1972.
- Braun, von Christina/Stefan, Inge: 젠더연구, 성 평등을 위한 비판적 학문, 탁선미/김륜옥/장춘익/장미영 역, 서울: 나남출판, 2002.
- Buchhards, Julia: Leben zwischen den Grenzen. Beispiele australischer Migrantenliteratur im 20. Jahrhundert. Heidelberg 1997.
- Chiellino, Carmine (Hrsg.): Interkulturelle Literatur in Deutschland. Ein Handbuch mit 77 Abbildungen. Stuttgart/Weimar 2000.
- During, Simon: 푸코와 문학. 글쓰기의 계보학을 향하여. 오경심/홍유미 옮김, 서울: 동문선, 1992.
- Göring, Heinz: Deutsch als Fremdsprache und interkulturelle Kommunikation. In: Alois Wierlacher (Hrsg.), Fremdsprache Deutsch. Grundlagen und Verfahren der Germanistik als Fremdsprachenphilologie. Bd. 1. München 1980, S. 71-91.
- Hassel, Eva: Gelebte Interkulturalität. Schreibende Frauen im italo/amerikanischen Kontext. Würzburg 2000.
- Horrocks, David/Kolinsky, Eva (Hrsg.): Turkish Culture in German Society Today. Providence/Oxford 1996.
- Kimmich, Dorothee/Renner, Rolf Günter/Stiegler, Bernd (Hrsg.), Texte zur Literaturtheorie der Gegenwart. Stuttgart 1996.
- Lindhoff, Lena: Einführung in die feministische Literaturtheorie. Stuttgart/Weimar 1995.

Lützel, Paul Michael (Hrsg.): Räume der literarischen Postmoderne. Gender, Performativität, Globalisierung. Tübingen 2000.

Pelz, Annegret: Reisen durch die eigene Fremde. Reiseliteratur von Frauen als autogeographische Schriften. Köln u.a. 1993.

Schiller, Friedrich: Friedrich Schiller, Schillers Werke, Bd. IV, eingeleitet von Hans Mayer/Golo Mann. Frankfurt a. M. 1966.

Wagner, Roy: The Invention of Culture, 2. Auflage. Chicago/London 1981.

Wierschke, Annette: Schreiben als Selbstbehauptung: Kulturkonflikt und Identität in den Werken von Aysel Özakin, Alev Tekinay und Emine Sevgi Özdamar. Mit Interviews. Frankfurt a. M. 1996.

김기선, 작가 소개. In: 클라우스 포올, 『아름다운 낯선 여인 Die schöne Fremde』, 김기선 역. 독일문학 회곡선 II.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3, S. 117-126.

- : 클라우스 포올의 독일 삼부작: 『옛 땅』, 『카라테-빌리 돌아오다』, 『아름다운 낯선 여인』 - 통독 전후 독일의 제문제. In: 독일어문학, 제 22집 (2003), S. 1-26.

김륜옥: 한국의 독일어 수업에서 문학텍스트의 선정 기준에 관한 연구 - 70년대 이후 독일 여성 작가의 탈가부장적 자아 찾기와 새로운 문학어를 중심으로. In: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제 2집 (1997), S. 133-156.

- : 토마스 만과 '여성적인 것' - 독문학 새로 읽기. In: 독일문학, 제 67집 39권 3호 (1998), S. 183-207.

- : ‘여성적-주관적’ 문학? - 여성 작가들에 대한 성 차별주의적 문학 담론에 대하여. In: 독일어문학, 제 7집 (1998), S. 193-210.
- : 성담론 위에 꽃핀 “황금의 20년대” 및 그 전·후 시기 - 젠더학적 시각에서. In: 독일어문학, 제 16집 (2001), S. 25-50.
- : 젠더연구의 해체적 시각에서 본 잉에보르크 바하만의 글쓰기 - 『운디네는 떠난다』와 『너 행복한 눈』을 중심으로. In: 뷔히너와 현대 문학, 제 18호 (2002), S. 103-124.
- : 『데미안 Demian』: 섹스, 젠더 그리고 자신을 향한 ‘끝없는’ 길 - 젠더학적 관점에서 본 헤르만 헤세의 인간/남성상. In: 독일문학, 제 87집, 44권 3호 (2003), S. 216-232.
- : ‘가부장적 가문의 몰락’, 혹은 토마스 만의 장편 『부덴부르크 일가』에 그려진 젠더 상. In: 뷔히너와 현대문학, 제 22호 (2004), S. 148-166.
- : 헤르만 헤세와 ‘낮선 것’의 구조 및 의미 - 사회문화적 생성사의 관점에서 『클링소어의 마지막 여름』을 예로. 헤세연구, 제 12집 (2004), S. 43-62.

김우창 외: 경계를 넘어 글쓰기. 서울: 민음사 2001.

문학이론연구회 엮음: 담론 분석의 이론과 실제.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2.

신미경: 프랑스 문학사회학. 서울: 동문선 2003.

지명렬 편: 독일문학사조사. 서울: 서울대출판부 2002.

# ABSTRACT

## The meaning of 'the strange' in contemporary German literature.

- In literary works by Klaus Pohl and Aysel Özakin -

Kim, Jin Sook  
Dept. of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eaning of 'the strange' in contemporary German literature from the aspects of gender studies and intercultural study. The literary works that will be analyzed are a drama *Die schöne Fremde* by Klaus Pohl, a male German dramatist and a novel *Die Leidenschaft der Anderen* by Aysel Özakin, a female Turkish novelist.

The works above use a common material, which contains the culture shock and identity-problems involved in cultural differences. In pursuit of searching for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s between cultures, all two writers show the similarity in their works.

However, the identity-problems of individual characters in the works,

involved in cultural conflict and culture shock, appear to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aspect of their understanding 'the strange'. Therefore, 'the strange' has a different meaning in each work. For instance, 'the strange' in *Die schöne Fremde* means the appearance of 'you' separated from the center of 'I'. And the work *Die Leidenschaft der Anderen* shows 'the strange' as not only 'you' but also 'I'.

Pohl, who is against belonging to the 'main' culture in German, appears to be open to 'the strange' first. And he also criticizes the conflict between exclusive cultures after figuring out conflicts and chaos, which are caused by culture shock. However, since he has never had an identity as 'a stranger' on condition with being around German culture, he seems to be unable to suggest the possibility for conflict overcoming.

On the contrary, because Özakin has undergone through the phase that changes her identity into 'a stranger' from 'a strange place', the conflict from culture shock in her work does not show the extremely unbiased tendency. Her novel shows that the identity chaos from culture shock can be overcome through formation or transformation of proper identity in a new culture.

According to the writers, the cultural gender awareness is somewhat related to their gender identity. At first, Pohl shows that the exclusive behavior against other culture is ridiculous and points out distorted 'female' within 'male' - centralized culture. However, each gender

awareness in his work is divided into two extreme groups, which is mainly about 'center' and the rest. Therefore, the culture shock in his work cannot be developed to understanding and harmony between cultures.

On the other hand, the case of Özakin, who had to live with social-culturally feminization, has tendency to show her maternal affection about the trouble of understanding between cultures. In order to overcome the conflict due to culture shock, she finds the solution not with request to the change of other culture or the change of the behavior of other people but with the change of herself through adapting new culture into proper identity formation. 'Female' flexibility plays a very important part in her works, which shows the pursuit of harmony, acceptance, and comprehension.

In conclusion, it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 meaning of 'the strange' in their works that each writer shows how gender identity of gender awareness and cultural self-identity are formed under which social-cultural circumstances. In order to form the meaning of 'the strange' in their work, what literary tool the writer choose is the social-cultural condition of the meaning.